

스포츠 워킹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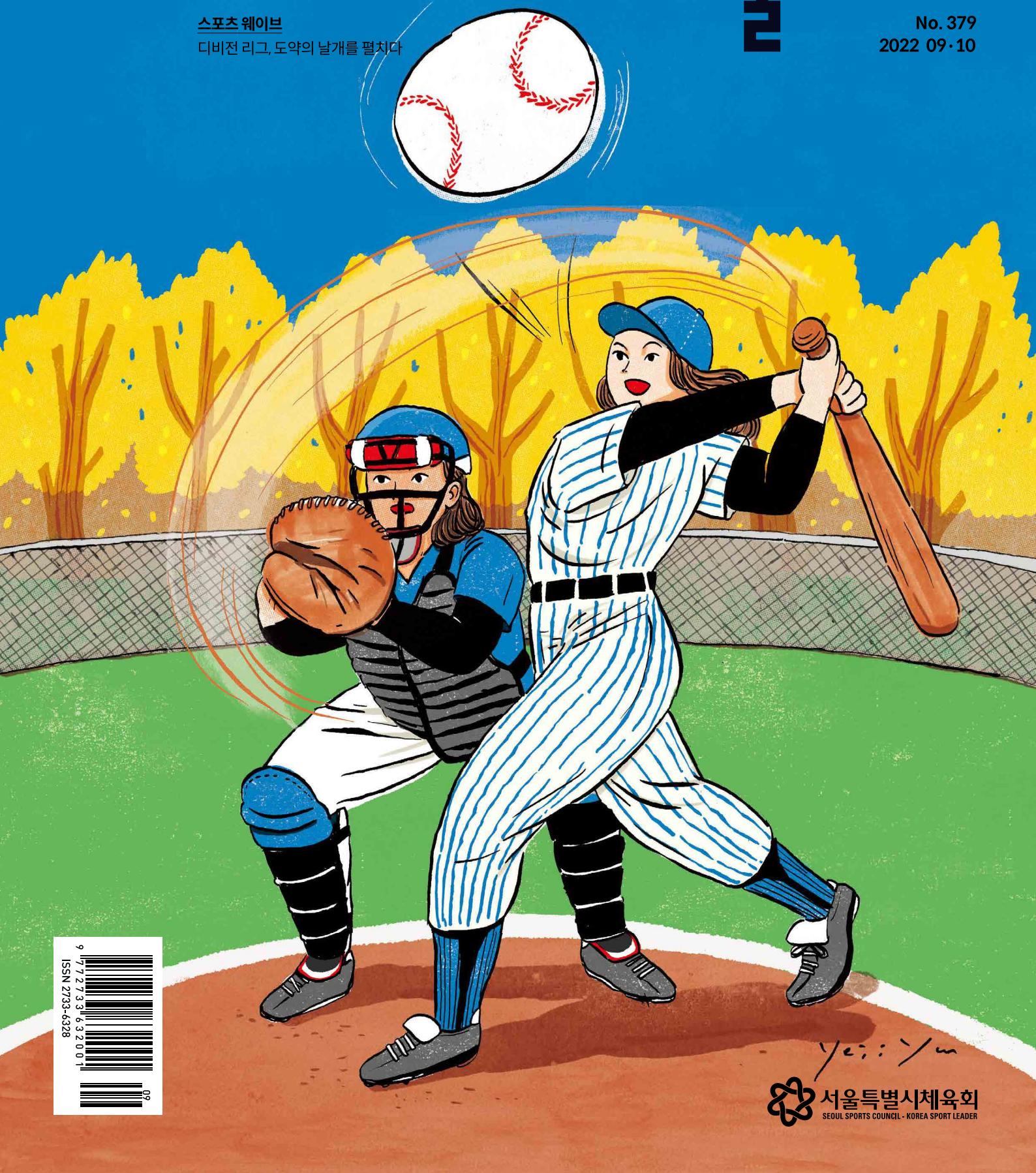
독립문에서 고척돔까지, 서양 공놀이에서 국민 스포츠로
한국 야구 역사와 함께 걷기

스포츠 웨이브

디비전 리그, 도약의 날개를 펼치다

서울 스포츠

No. 379
2022 09·10



잠잠하던 야구장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관람도, 응원도
하지 못하던 시기가 지나고
꽉 찬 관중석에서 다 같이
응원하고 즐깁니다.

마지막 시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9월과 10월,
야구장에서 함께 “으라차차 홈런!”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으라차차 홈런!”



서울 스포츠

Bimonthly Magazine No.379
09.10.2022

발행일 2022년 9월 1일
발행인 박원하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임홍준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숙 동국대학교 교수
편집 시민홍보팀 운영하, 이혜웅
등록번호 서울 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종량구 망우로 182(상봉동)
웹진 news.seulsports.or.kr
전화 02-490-2700
디자인·제작 동아이엔디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Contents

- | | | |
|--|---|---|
| <p>04 스포츠 워킹 투어
독립문에서 고척돔까지,
서양 공놀이에서 국민 스포츠로
<u>한국 야구 역사와 함께 걷기</u></p> <p>12 스포츠 웨이브
디비전 리그, 도약의 날개를 펼치다
1 왜 디비전 리그인가?
2 국내 디비전 리그 시스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3 스포츠 개혁의 종착역 '디비전 리그'</p> <p>22 학교체육을 부탁해
재미에 건강까지,
스마트기기로 통하는 요즘 체육 수업</p> <p>26 공공스포츠클럽 탐방
스포츠의 진입장벽을 낮추다
<u>은평스포츠클럽</u></p> | <p>30 스포츠業UP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위한 길 중심에 서다
<u>홍보실 권진희 주임 & 도핑검사부 오민진 주임</u></p> <p>32 스포츠데이터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의 새로운 바람</p> <p>36 스포츠 시사 읽기
스포츠와 NFT의 뜨거운 만남
법·제도상 괜찮을까?</p> <p>40 남북 단일팀 역사 훑어보기
1988년 서울 올림픽 공동 개최 논쟁
<u>88 서울 올림픽을 둘러싼 남북의 동상이몽</u></p> <p>44 랜선으로 배워봅시다
홈트 만난 발레, 예술을 넘어 운동이 되다</p> | <p>46 이것도 스포츠!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인디아카</p> <p>48 건강 팩트 체크!
열심히 운동한 당신, 숙면이 필요하다</p> <p>50 서울시청 여자축구팀
국가대표 4인방 인터뷰
떴다! 태극마크! 유쾌한 축구 수다 속으로</p> <p>54 아무튼 스포츠
MZ세대의 유쾌한 디지털 운동 생활</p> <p>56 SSC 뉴스+SSAD 뉴스</p> <p>59 스포츠 모의고사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립니다</p> <p>60 오하운 두 달 챌린지</p> |
|--|---|---|



독립문에서 고적돔까지, 서양 공놀이에서 국민 스포츠로

한국 야구 역사와 함께 걷기

4월부터 10월까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마다 150일 이상 5경기씩 꼬박꼬박 중계방송 되는 야구는 매일 수백만 명의 눈과 귀를 TV와 스마트폰 화면으로 잡아끄는 한국의 국민 스포츠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잠자는 시간과 회사, 학교에서 보내는 일과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을 야구와 함께하며, 전날 경기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거둔 성적에 따라 매일 아침의 기분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최소한 수백만 명 이상 살아가고 있다. 야구는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성장해왔을까? 그 과정을 따라 걸어보자.



독립문 자리에서 탄생한 한국인 최초의 야구 선수

한국의 야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독립협회가 발간하는 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ce>(인디펜던스) 1896년 4월 28일자에 등장한다. 그 기사에 따르면, 토요일이던 1896년 4월 25일 오후 2시 30분, 서대문 밖 모화관 터에서 서울에 체류하던 미국인들이 군인과 민간인으로 편을 나누어 야구 시합을 벌였고, 21대 20으로 군인 팀이 이겼다. 군인은 당시 미국 공사관을 경비하던 해병대원들이었고 민간인은 대부분 서울에 머물던 선교사 일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반도 어딘가에서 야구 시합이 벌어졌을 수는 있다. 그날 경기를 앞두고 미리 미군들이나 선교사들이 연습 경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인천에 살던 한 일본인 학생의 일기장에서 ‘베이스 볼이라는 서양식 공놀이를 했다’는 대목이 발견된 적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기록으로 확인된 정식 경기의 흔적은 그것이 처음이고, 그래서 그 경기가 벌어졌던, 지금 독립문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야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독립문 자리에서 열린 야구 경기에 관한 기록은 그날 한 번뿐이었다. 그날 한 점 차의 치열한 승부를 벌인 미군과 선교사들은 두 달 뒤 2차전을 가졌는데, 그 때는 장소가 동대문의 훈련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The Independence>는 1896년 6월 25일자에 2차전에 관한 내용도 실었는데 그날의 기사에는 1차전 때 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1차전 때는 그저 경기가 열렸고 미군 팀이 이겼다는 정도가 보도되었다면 2차전 기사에는 양팀 선수들의 이름과 그 선수들이 각자 몇 점을 득점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선수들의 이름 중에 독립신문 발행

인인 서재필이 들어 있고 특히 그가 2점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쩌면 그날의 기사가 좀 더 자세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서재필은 현재까지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국인 최초의 야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야구 경기를 취재한 최초의 기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실을 수비하는 조선의 최정예 부대가 주둔하던 훈련원에 마련된 넓적하고 평坦한 연병장은 잡초와 잡석들



동대문야구장 | 고교 야구대회인 ‘황금사자기’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동대문야구장은 고교 야구대회부터 한국 프로야구까지 한국 야구의 수많은 역사가 담긴 곳으로 지난 2007년 철거됐다



야구가 시작된 인사동 골목 YMCA회관터

1898년 독립협회가 보수파의 공격을 받고 황제의 심기를 거슬러 해산되면서 독립신문은 폐간되었고 서재필도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개화를 지향하던 젊은이들도 흩어져버렸다. 하지만 5년 뒤인 1903년에 세계적인 기독청년단체인 YMCA가 황성 지부를 개설하면서 새로운

COURSE 1

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2· 서대문독립공원 – 3· 독립문



Spot 1* 서대문독립공원

일제강점기에 의병투쟁, 3·1 독립만세운동, 항일투쟁 등으로 투옥대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 위치 서대문구 통일로 247

Spot 2*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와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배울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1998년에 개관했다.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있으며, 지하 옥사와 감시탑, 고문실 등으로 구성됐다.

- 위치 서대문구 통일로 251
- 운영 시간 9:30~18:00(11~2월은 17시까지), 월요일 정기휴무

Spot 3* 독립문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2호로 지정된 독립문은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 자리에 청의 자배를 벗어나 독립적인 국가가 되었음을 기념하고 과시하기 위해 세워졌다.

- 위치 서대문구 현저동 941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황성 YMCA가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인사동의 한 기와집이었는데, 훗날 요릿집 ‘태화관’으로 바뀌었다. 1919년 3월 1일에 33인의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을 낭독한 뒤 일본 경찰에 체포된 바로 그 자리였다. 1903년 10월 28일 37명의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그들을 이끈 것은 북미 YMCA 국제위원회에서 창설 간사로 임명해 파견한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였다.

청년들의 영적 구제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YMCA의 특징이기도 했지만, 특히 질레트 선교사는 워낙 온갖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조선을 향하던 그의 보따리에는 성경책과 더불어 농구공과 배구공부터 권투 글러브, 스케이트, 야구글러브와 공 따위의 운동 장비들이 잔뜩 들어 있었고, 그것은 한국 근대스포츠의 여러 종목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COURSE 2

4·운현궁 – 5·조계사 – 6·삼일독립선언유적지



그중에서도 질레트 선교사가 한국 스포츠에 남긴 가장 중요한 영향은 야구에 관한 것이다. 황성 YMCA는 창립 직후인 1904년에 야구단을 창단했고 얼마 뒤부터는 일본인 교사들에게 야구를 배운 관립학교 학생팀들과 야구 경기를 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때도 대부분의 경기가 열린 곳은 동대문의 훈련원 터였다. 하지만 황성 YMCA의 청년들이 처음 글러브를 끼고 질레트 선교사와 야구공을 주고받으며 야구라는 공놀

이에 대해 접했던 곳, 한국 최초의 야구팀을 만든 뒤 선수들이 공을 던지고 받으며 간단한 연습을 했던 곳은 어디였을까? 인사동의 골목길, 혹은 인사동 어느 구석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얼굴만 한 가죽 장갑을 끈 채 하얀 공을 던지고 받던 저고리 차림 청년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인사동에 야구장이 만들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인사동 골목길 역시 한국 야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인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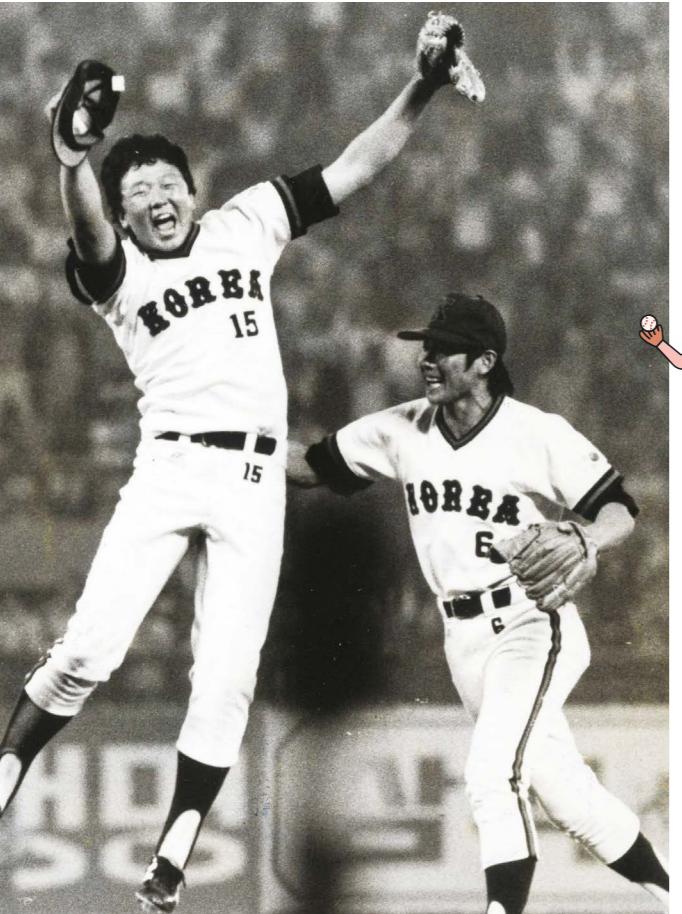


잠실야구장 | 1982년 7월 완공된 잠실야구장은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함께 홈구장으로 사용한다

“더 크고 더 멋지게” 한국인의 자부심, 잠실야구장

그로부터 8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구는 국민 스포츠로 성장했다. 1925년에 지어진 경성야구장은 해방 후 서울야구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특히 야구가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떠오른 1970년대에는 고교야구와 실업야구를 보기 위해 찾아드는 연간 100만 명 이상 관중의 합성과 함께 끊어오르곤 했다. 1977년 니カラ과에서 열린 슈퍼월드컵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역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에 성공하자 야구협회는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유치를 신청했고, 정부는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 잠실에 새로운 야구장을 지었다.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 야구와 그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한 한국 경제의 위용을 세계인들 앞에 과시하기 위한 동양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야구장. 그곳을 한창 짓는 동안 한국은 놀랍게도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또 많은 이의 예상을 앞질러 프로야구도 창설하게 됐다. 잠실에 지어진 새 야구장에서는 세계야구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프로야구 경기가 치러졌다. 1982년, 한국은 서울에서 열린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멋지고 극적인 과정을 거



1982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야구선수권대회 결승 당시, 선동렬 대표팀 수석코치(왼쪽)와 한대화(삼성 코치)가 함께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처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올랐다. 일본을 상대로 객관적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젖 먹던 힘까지 끌어올려 내지른 한 방의 카운터펀치로 뉴아웃시켜버리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대역전극. 그 역전극은 같은 해에 시작되어 역시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를 극적인 만루홈런으로 장식한 프로야구와 더불어 온 국민을 사로잡았고 1980년대를 야구와 스포츠의 르네상스기로 이끈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절정기를 맞았지만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IMF 외환위기 와중에 주저앉았던 프로야구가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은 것은 2000년대 중반이었다. 경제 상황이 점차 회복되었고, 국제대회에서 전해진 한국 야구의 놀라운 성과들이 떠났던 야구팬들을 다시 야구장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김동주 선수가 친 홈런 공이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장외홈런 기념비는 종합운동장 5번 출구로 나와 야구장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척스카이돔에서 하는 야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내내 야구를 할 수 있는 돔구장 하나쯤은 우리도 가질 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힘을 얻은 것도 그 무렵이다. 한국의 국민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7월부터 태풍이 오가는 9월 사이에는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야구인과 야구팬들의 자조적인 한탄이 쌓이고 쌓이며 뒷받침한 덕이었다. 그즈음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던 이승엽 선수의 경기 중계방송을 통해 종종 일본의 돔구장을 접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번져간 것도 한몫했다. 마침 동대문야구장을 헐어버린 뒤 대체 구장으로 짓던 고척동의 야구장에 뚜껑을 씌우면 어떻게 느냐는 제안이 힘을 얻었고 2015년에 드디어 한국 최초의 돔 야구장이 문을 열게 됐다. 프로야구 시즌에는 키움 히어로즈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프리미어12나 WBC 아시아 예선 같은 국제대회를 치를 때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간혹 높이 치솟은 타구가 천장에 맞는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기도하는데, 지점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한 '로컬 룰'이 지정되어 있다.



고척스카이돔 | 한국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야구를 즐길 수 있으며, 공연장으로도 활용된다



고척스카이돔 이용하기



야구역사의 벽

지하철로 방문 시, 구일역 2번 출구로 나오면 한국 야구의 역사를 기록한 '야구역사의 벽'을 볼 수 있다.



스카이돔 입장 티켓

외야내야 좌석, 홈팀·원정팀에 따라 게이트가 다르다. 티켓 확인 후 입장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물론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고, 처음부터 잘 계획된 것도 아니었지만, 한국은 계절에 상관없이 야구 이벤트를 만들거나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한 나라가 됐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돔구장을 지을 기회가 생긴다면 참고할 중요한 출발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국인에게, 우리에게 야구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그깟 공놀이'일 뿐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종교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 때로는 즐기지만 때로는 매달리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끔 꽁꽁 묶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어떤 것. 백만 명에게 있어서 백만 가지 의미일 야구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자라왔는지 돌아보는 것은 꽤 의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번 나서보자. 독립문과 동대문, 인사동, 잠실, 그리고 고척동의 차례로 말이다.✿

글을 쓴 김은식은 야구와 인물, 역사 등에 관한 책을 40권 이상 써온 작가다. 한국인들이 유독 야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야구가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이기도 하다.

디비전 리그, 도약의 날개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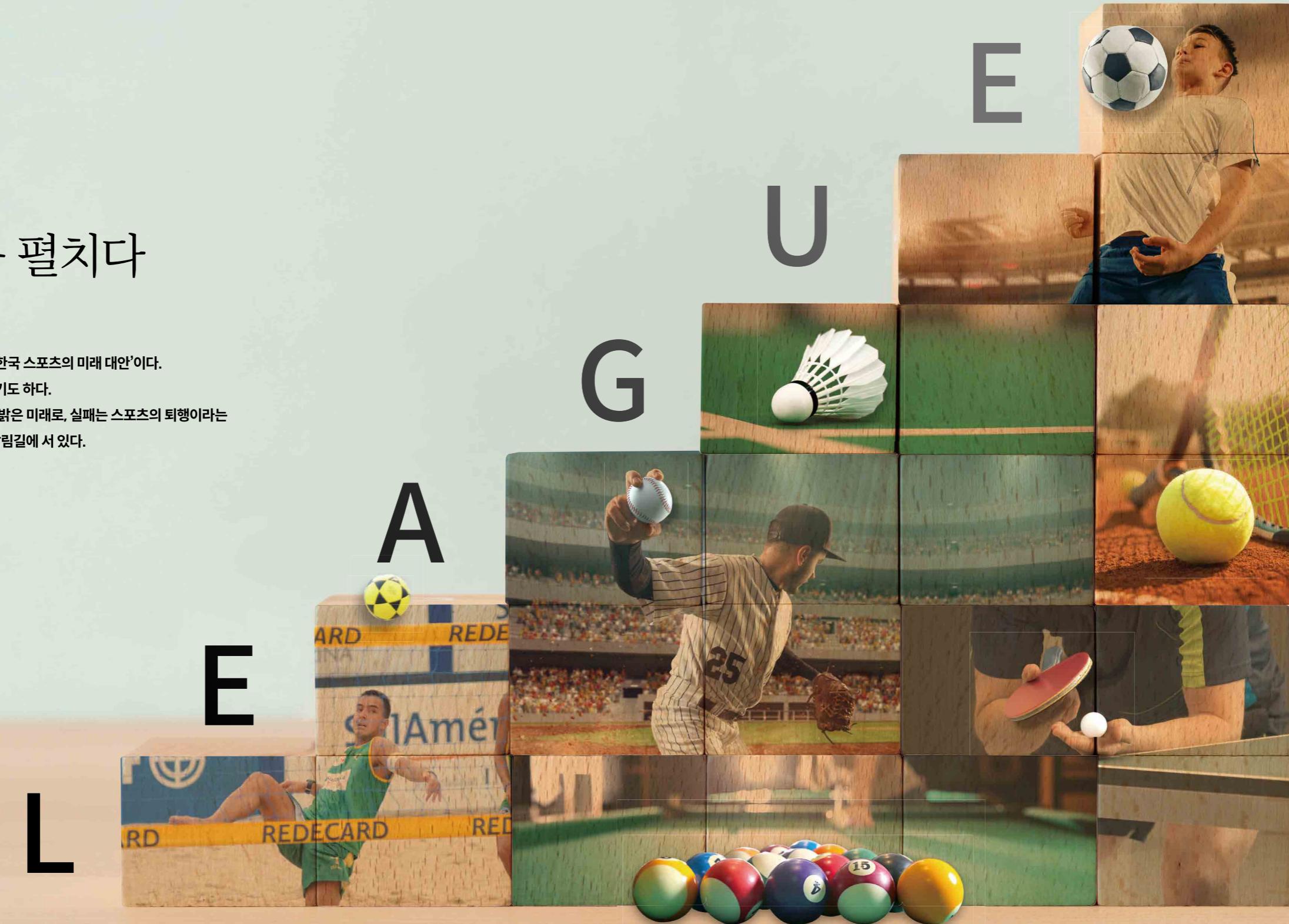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

‘종목별 디비전 리그’는 오랜 세월 동안 기획된 ‘한국 스포츠의 미래 대안’이다.

수많은 스포츠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이기도 하다.

종목별 디비전 리그의 성공은 선진 스포츠라는 밝은 미래로, 실패는 스포츠의 퇴행이라는 어두운 터널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스포츠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중심에 디비전 리그가 있다.



왜 디비전 리그인가?

디비전 시스템이란?

디비전 시스템이란 한 리그 내에 다수 수준별 디비전 리그를 운영하고, 성적에 따라 디비전 사이에서 상위 리그 하위 팀과 하위 리그 상위 팀이 자리를 옮기는 리그 운영체제를 말한다.

디비전 리그 시스템은 리그 진입과 이동 장벽이 낮은 개방형 운영체제로 신규 리그 진입자를 제한하는 NBA나 MLB 같은 폐쇄형 리그 운영체제와 대비된다. 대부분 유럽

축구 리그에서 사용하고 있다. 디비전 리그 시스템은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성격 때문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리그 간 승강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팬들에게는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엘리트-생활체육 경계를 허물어 생활체육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클럽 및 선수 육성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디비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동반 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종목별 질적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스포츠산업이 선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2017년부터 축구가 7부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2020년 디비전 리그 지원 공모'를 통해 야구, 당구, 탁구 종목을 선정하고 디비전 리그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여러 명 뛰는 강력한 국가대표팀을 원하는가?
관중이 가득 들어찬 프로축구 리그? 어디를 가나 빈 운동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남녀노소가 축구를 즐기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물으신다면 디비전 리그 시스템에 그 답이 있다.



©Shutterstock

“
한 리그 내에 다수 수준별 디비전 리그를 운영하고, 성적에 따라 디비전 사이에서 상위 리그 하위 팀과 하위 리그 상위 팀이 자리를 옮기는 리그”

해외 사례로 보는 디비전 리그

영국은 축구 종주국답게 축구 디비전 리그 시스템을 가장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영국은 7000여 축구 클럽팀이 크게 7개 단계(Level)의 24개 하부 리그에 속해 경기를 치른다. 1부 프리미어 리그부터 5부 내셔널 리그까지는 영국축구협회가 직접 행정과 운영을 담당한다. 6부 이하 리그는 지역 아마추어 리그로 각 지역축구협회에서 운영한다. 호주는 엘리트 축구보다 생활 축구가 강한 나라다. 잘 정비된 디비전 리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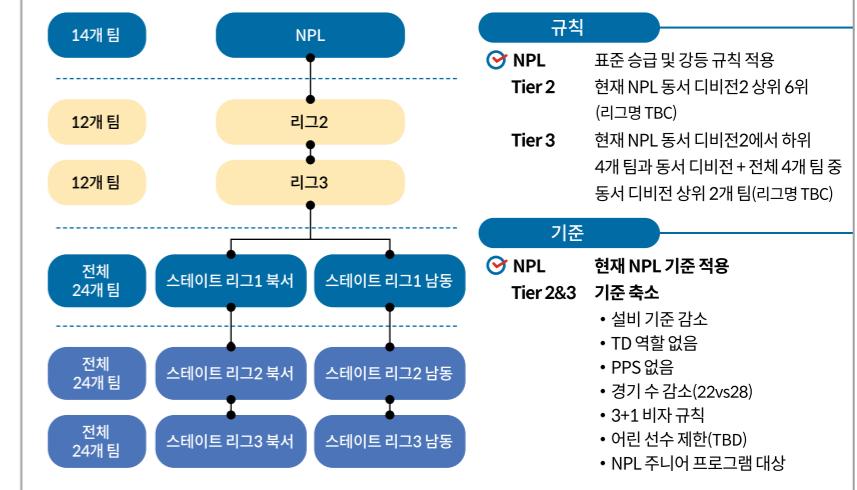
호주는 2400개 축구 클럽팀이 디비전 리그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내셔널 프리미어 리그(National Premier League)를 정점으로 크게 프로 리그(A-League, NPL), 세미 프로 리그(National Premier League, Tier 2), 아마추어 리그(State League, Tier 3)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 리그는 전국 단위 리그이지만 2부 리그부터는 호주의 지리,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여 주축구회와 지역협회에서 독립적으로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모두 디비전 리그 시스템에 프로와 아마추어 간 교류가 가능한 승강제를 적



잉글랜드 디비전 리그 피라미드

출처: The Grosvenor Blog

시니어 경쟁 구조(2020)



호주 디비전 리그 피라미드

출처: Football Federation Victoria

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구성팀이 리그 참가를 위해 '클럽 라이선스'를 발부받아야 하고 '등록제'를 실시하여 모든 선수가 구성원으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야만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3가지 제도는 디비전 리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꼽힌다. ☈

글을 쓴 김유경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했고 가르치고 있다. 돈 많이 버는 스포츠 경영학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는 스포츠 경영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힘쓰고 있다.

국내 디비전 리그 시스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K리그2 대전하나시티즌 마사(7번) 선수와 K리그1 강원FC 김대우(66번)선수가 승강 PO 1차전에서 승격과 강등을 두고 치열한 한판을 벌이고 있다

프로 데뷔골을 넣은 7부 리그 출신 선수

지난 7월 프로 축구 1부 리그인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와 FC서울 간의 경기에서 제주의 측면 공격수 김범수가 프로 데뷔골을 넣었다. 이상윤 해설위원이 경기

시작 전부터 김범수의 활약을 주목해야 한다며 강조하기 했지만 김범수의 골은 여느 신인 선수의 데뷔골과는 달리 수많은 언론은 물론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김범수가 생활체육 동호인 최하위 리그인 K7리그 출신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에 실패한 그는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아마추어 리그인 K7리그를 거쳐 세미 프로 하부 리그 K4

최근 아마추어 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가 K리그1에 프로선수로 데뷔해 골을 넣은 일이 이슈가 됐다. 축구 종목으로 시작한 아마추어 리그가 정식 출범한 지도 벌써 7년. 아마추어 리그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국내 프로축구 피라미드 최상위 리그인 K리그1로 진입한,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축구 인생의 표본으로 한국판 제이미 바디라 칭해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 진학에 실패한 선수가 프로축구 리그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K7리그, 그리고 K4리그라는 성공의 발판이다. 이 선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었던 아마추어 리그 K7리그와 세미 프로 리그 K4리그가 무엇인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승강제도의 학술적인 정의는 ‘경기력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로써 각각 상위 리그와 하위 리그로 해당 팀이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즉, 수준별 리그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리그가

종료되면 해당 리그의 최상위 순위 일부 팀이 한 단계 위에 있는 리그로 승격하고, 반대로 상위 리그의 최하위 순위 일부 팀은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리그로 강등된다. 동일한 숫자의 팀이 리그 간에 맞교환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승강제도 기반의 디비전 리그 시스템은 아마추어 K7리그 참가팀의 경기력을 갖고 있다면 단계별로 상위 리그로 승격하여 최종적으로는 프로 리그에서도 경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프로와 세미 프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디비전 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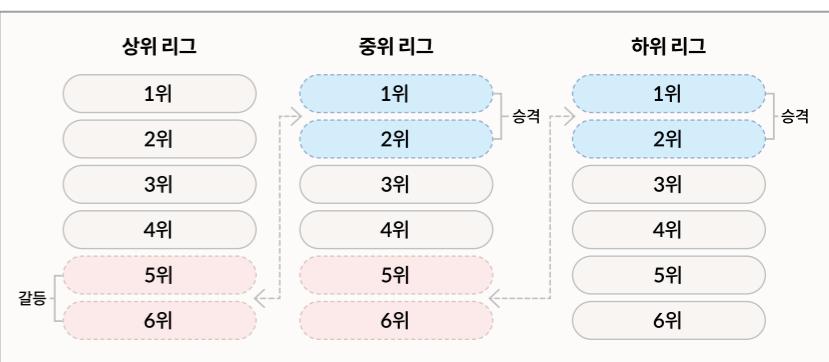
국내 축구 리그는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게 3가지 계층에 7개의 수준별 리그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축구 리그 모형을 통상적으로 피라미드 표현한다. 대한민국 축구 피라미드의 최상단에는 기업구단 및 시도민구단으로 구성된 프로축구(K리그1, K리그2)가 위치해 있다. 피라미드의 중간 계층은 흔히 세미 프로 리그로 분류되며, 과거 N리그에 참가했던 실업축구팀과 K3리그에 참여했던 준엘리트팀들이 통합되어 K3리그와 K4리그를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하단부에는 피라미드 전체를 지탱하는 3개의 리그가 있다. 바로 본 칼럼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생활체육 동호인 중심의 아마추어 리그이다. 3개 리그는 사·군·구 단위의 K7리그, 단일 사도 단위의 K6리그와 광역 사도 단위의 K5리그 등 3개의 수준별 리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와 같이 표면적으로 3단계 계층으로 구성된 디비전 리그 시스템은 과거부터 이미 존재하던 프로-세미 프로-아마추어로 이어지는 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



2017년 K7리그가 사·군·구 단위부터 시작됐고 *2019년 1,002개 팀 참가 예정
2018년 K6사·도 리그에 이어 *2019년 190개 팀 참가
올해부터는 전국 11개 지역의 67개의 동호인 최강팀이 참가하는 K5 광역 리그가 시작됩니다.

[그림 1] 대한민국 축구 피라미드 구조



[그림 2] 승강제 모형도

세미 프로와 아마추어 리그 사이에는 본격적인 승강제도가 도입되지 못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모든 계층을 승강제도로 연결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앞서 소개했던 제주 유나이티드 김범수 선수 사례처럼 선수가 이적을 통해 상위 리그로 이동할 수 있지만 축구팀 자체도 경기력에 따라 상위 리그로 이동할 수 있는 유럽 축구 리그의 모델을 국내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디비전 리그 시스템이 갖는 의의라 할 수 있다.

디비전리그, 다른 종목으로의 이식

일부 수준별 리그 사이에서만 승강제도가 시행 중인 디비전 리그 시스템은 ‘미완의 디비전 피라미드’라 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프로와 세미 프로, 그리고 아마추어를 연결하는 하나의 스포츠 참여 통합 체계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받는다.

적 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2017년, 축구 종목에서 처음 시작된 본 사업은 3년 만에 당구, 야구, 탁구 등 3개 종목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본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운영 종목 선정 시 연간 최대 2,100백만 원을 최소 3년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예산이 증액되어 배드민턴과 테니스, 족구 등 3개 종목이 추가 선정됐다.

3개 종목은 현재 최하부 리그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비전 리그는 같은 과정을 통해 국내 생활체육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의 청사진에서 ‘승강제 기반의 디비전 리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갈길 먼 국내 디비전 리그

국내 디비전 리그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종목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디비전 리그 시스템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유럽형 스포츠 시스템의 산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예산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사업으

로 추진되고 있어 선진화된 시스템을 한 순간에 도입하고 정착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중 두 가지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종목별로 상이한 리그당 참가 팀의 수이다. 일부는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종목에서 하나의 단위 리그를 구성하는 참가 팀은 평균적으로 6개 팀이다. 연중 및 장기간 진행되는 대회로서의 리그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0개 이상 팀으로 리그를 구성하고, 증가된 팀 수에 따라 많아지는 경기 횟수를 통해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동호인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 및 운영 요인으로는 팀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문제점은 리그 피라미드의 구조이다. 하부 리그로 내려갈수록 해당 계층을 구성하는 리그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아마추어 축구 최상위 리그인 K5리그는 11개 광역 리그가 있는 반면 K6리그는 33개, K7리그는 100개 이상이다. 디비전 리그 시초인 영국 축구 피라미드는 종적으로 팽창하여 디비전의 계층이 하단부로 길게 늘어지는 형태다. 실제 디비전 리그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영국과 같은 구조다. 이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기금 혜택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평성이란 특성을



지난 6월부터 시작한 2022년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는 올해 12월까지 7개월간 열린다

갖고 있는 정책 사업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를 예로 들어보자. 화성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디비전 리그 참가 팀의 숫자가 매우 많아 4개의 K7리그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같은 권역에서 참가 팀이 많다면 K7리그 밑에 하부 리그를 신설하여 승강제로 연결해야 하지만 본 사업의 시작점은 K7리그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종단 계층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단계에서 횡단으로 리그 숫자가 확장되는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화다. 기존 생활체육 참여는 지역 소수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친선 도모 목적이 강했다. 지역 대회 경우, 하루 또는 이틀간 몰아 진행하는 단발성 토너먼트로 이뤄졌다. 그러나 리그의 도입은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승강제를 통해 다른 지역의 팀들과도 경쟁할 수 있어 스포츠 참여의 범위가 넓어진다.

두 번째 변화는 동호인 조직의 클럽화다.

클럽화란 ‘조직화’ 또는 ‘운영 전문화’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친목 도모 목적만으로 설립된 동호인 조직에서,

대회 참가와 팀 운영을 위해 재정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감독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클럽화를 설명할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다. 이처럼 동호인 조직의 클럽화는 탄탄한 생활체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세 번째 변화는 지역 생활체육 시스템의 재정적 역량 강화다. 아직 국내 디비전 리그는 참가비가 없거나 매우 저렴하지만 해외는 리그 참가를 위해 팀 등록비는 물론 선수 등록비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지역 종목 단체 연간 수입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디비전 리그로 인해 우수 선수 발굴의 기회가 넓어진다. 디비전 리그 관련 기사를 볼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미사여구는 바로 ‘한국판 제이미 바디 발굴’이다. 본 글 초입에 김범수 선수 사례처럼 디비전 리그는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성장하는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곧 우수 선수 육성과 국가 전반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디비전 리그 시스템이 향후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다양한 종목에서 디비전 리그를 이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한민국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표 1] 2022년 대한체육회 디비전 리그 지원사업 추진 현황

구분	축구	야구	당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출범 연도	2017	2020	2020	2020	2022	2022	2022
리그 수	239	138	240	929	115	115	184
예산(백만 원)	4,962	3,039	3,039	3,039	2,100	2,100	2,100
내용	K5~K7 운영	D4~D6리그 운영	D3~D5리그 운영	T2~T6리그 운영	B5리그 운영	T4리그 운영	J4~5리그 운영

스포츠 생태계 변화의 구심점 역할 기대

일부 문제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본 디비전 리그 시스템은 미래 스포츠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생활체육 참여 방식에서의 변

글을 쓴 권순우는 ‘더 많은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시니어 컨설턴트다. 프로 스포츠를 공부하고자 떠났던 호주에서 지역 단위 스포츠클럽과 선진화된 디비전 리그 시스템을 경험했다. 스포츠 정책이 국가 스포츠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다수의 정부 및 지자체 스포츠정책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포츠사회학 및 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스포츠 개혁의 종착역 ‘디비전 리그’

사실 스포츠 개혁이 본격화된 20여년 전부터 모든 개혁의 방향은 ‘종목별 디비전 리그’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스포츠계 인권 문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문제 등 어쩔 수 없는 근본적 갈등이 워낙 침례하게 부딪치다 보니 정작 스포츠 개혁이 가고 있는 최종 방향을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스포츠 개혁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거대한 흐름 속 어딘가에 디비전 리그 성공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K-스포츠 혁명의 구조’와 ‘디비전 리그’

한국 스포츠는 지금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패러다임’이란 미국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과 가치의 종합적 체계’다. 같은 시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패러다임은 절대적 권위를 지닌다.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은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가 목숨을 잊거나 위험받은 역사적 사례도 무수히 많다. ‘천동설’ 대신 ‘지동설’을 주장하다 종교재판에 회부됐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기 위해서 천동설을 인정했지만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Shutterstock
2017년 축구 종목 하나로 출범한 디비전 리그는 2022년 총 7개 종목으로 확대됐다.
대한농구협회도 디비전 리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패러다임은 영원할 수 없다.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인도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스포츠를 지배해온 패러다임은 승리를 최상의 가치에 두고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내하는 ‘금메달 패러다임’이었다. 당연히 경기력 향상이 절대적 목표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스포츠와 국민 행복 중심의 생활 스포츠가 통합 발전하는 ‘스포츠 복지 패러다임’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스포츠는 복지이자 시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주장하다 오히려 징계를 받았던 ‘장희진 선수 파문’, 스포츠 계를 뒤흔든 ‘쇼트트랙 대표팀 성폭력 사건’,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비극적 삶을 마감한 ‘최숙현 선수의 비극’, ‘쌍둥이 배구 스타의 학교 폭력 사건’ 등 감당할 수 없는 모순이 쌓이면서 ‘금메달 패러다임’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는 선수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경기력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와 국민 행복 중심의 생활 스포츠가 통합 발전하는 ‘스포츠 복지 패러다임’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스포츠는 복지이자 시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다.

한국 스포츠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누구나 참여하는(Sport For All) 생활체육의 저변에서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스포츠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포츠 선진국처럼 대한민국 스포츠가 선택한 대안이 바로 ‘종목별 디비전 리그’다.

‘농구미래발전위원회’가 꿈꾸는 미래

대한농구협회는 ‘농구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농구 디비전 리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형 디비전 리그, 한국 축구 디비전 리그, 서울시민리그(S-리그)형을 기본 모델로 ‘문화체육관광부 디비전 리그 공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기획 중인 ‘농구발전전략보고서(Basketball Strategic Planning Report)’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에 걸친 ‘실행전략(Action Plan)’을 담는다. 디비전 11까지 운영하는 독일 축구나 디비전 7 시스템인 한국 축구와 달리 농구의 현실을 반영해 디비전 5 시스템으로 시작하게 된다. 엘리트 전문 선수의 영역인 디비전 1, 2부, 저변을 뒷받침할 생활 스포츠 농구가 디비전 3, 4, 5부를 구성한다.

디비전 리그는 승강제를 통해 실력에 따라 구분된다. 엘리트 농구와 생활체육 농구의 구분은 없어지고 실력의 차이만 남는다. 서울시민리그(S-리그)형 농구 리그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뿐만 아니라 하는 게 핵심 과제다. 서울시민리그(S-리그)형은 공적 예산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다. 2게임 또는 3게임 정도만 보장하는 사설 농구대회에도 때론 40만~

50만 원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 게 동호인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서울시민리그는 한 시즌 동안 권역별 리그와 플레이오프를 뛰면서 팀당 5만 원 정도의 참가비만 부담하면 된다. 참가 선수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유다. 공적 예산을 들여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통해 투자된 재정을 환수하는 유럽형 스포츠 복지 전략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농구 디비전 리그의 궁극적 목표는 농구 인구 100만 명, 농구팀 10만 개를 양성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농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2,200여 명에 불과하다.

17개 광역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 스포츠 클럽리그, 17개 광역 지자체와 연계한 시도별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팀과 선수가 엘리트 농구의 저변을 구축한다. 생활스포츠 농구와 엘리트 농구의 연결 고리는 ‘경기 기록과 선수 등록의 통합’이다. 1부부터 5부 까지 대한농구협회에 등록된 모든 선수의 공식 경기 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공식 기록이 누적되면 유소년 시절부터 전국의 농구 유망주를 관리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선수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상비군 후보, 대표팀 후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10년 실행 전략이 마무리되는 2032년 올림픽 목표는 남자 8강 여자 4강이다.

‘종목별 자율형 디비전 리그 공모제도’의 전략적 확산

디비전 리그를 전 종목으로 확산시키려면 스포츠인들의 자발적인 공감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종목별 자율형 디비전 리그 공모제도’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점진적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농구미래발전위원회’의 실험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포츠인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를 농구인들이 농구의 현실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한 미래가 바로 ‘농구 디비전 리그’가 되는 것이다. 농구의 성공 방정식은 그대로 다른 종목에도 반영할 수 있다. 종목마다 현실은 다르지만 스스로 선택한 미래를 지원하는 방식은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종목별 자율형 디비전 리그 공모제도’의 성공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종목별:** 각자 다른 개별 종목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
- **자율형:** 해당 종목의 경기인들이 자율적으로 디비전 리그를 선택한다
- **디비전 리그:** 경기인들 스스로 종목별 디비전 리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 **공모제도:**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식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종목에 변화를 강요하는 순간 저항과 갈등이 시작된다. ‘종목별 자율형 디비전 리그 공모제도’라는 명칭 안에 모든 성공 방정식은 이미 들어 있다. 긴 호흡으로 꾸준히 디비전 리그라는 한 방향으로 전진하면 된다. ♪

글을 쓴 정재용은 수십 년째 스포츠 개혁에 올인하고 있는 ‘꼴통’ KBS 스포츠 기자다. 50대 중반에 아직도 농구 대회 우승을 꿈꾸는 ‘농·또(농구 또라이)’다. 대한농구협회 ‘농구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구 디비전 리그를 기획 중이다.

'학교체육을 부탁해'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체육수업을 일차게 꾸려가고 있는 체육교사의 수업 소개 코너입니다.

자미에 건강까지, 스마트기기로 통하는 요즘 체육 수업

우리는 모두 체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은 대부분 힘들고 재미없어서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체육은 인기 과목 중 하나지만 건강 영역의 체력 증진 수업을 하면 웃음기를 잃은 학생들의 표정을 마주하게 된다. 학생들의 웃음을 되찾기 위한 나만의 비결을 귀띔한다.



체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아이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과목은 무엇일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과목은 단연코 체육일 것이다. 그렇다면 체육을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체력 수준은 어떨까?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저체력인 4·5등급 학생 비율이 2019년 12.2%였지만 2020년에는 17.6%, 2021년에는 17.7%로 늘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한 체육 수업만이 아닌 체력을 기르기 위한 체육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다.

2015 개정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지도하도록 구성됐다. 건강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을, 운동 체력은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등을 말한다.

체육 수업에 '이것'을 꺼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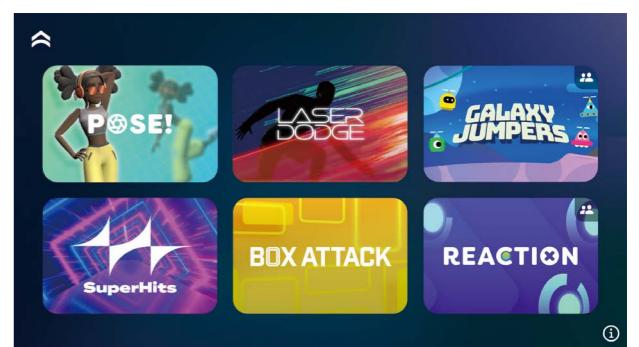
학생들이 아무리 체육을 좋아하더라도 체육 시간이 짧아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공부할 때다. 성인들도 체력을 기르는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힘든데 학생들은 오죽할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체력과 관련된 체육을 재미있게 지도하는 것은 교사로서 매우 어렵다. 물론 모든 체육 수업이 항상 재미있어야 성공적인 수업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죽을 것 같다', '재미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뿐이었다. 괴로워하거나 학습 동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다. 그렇다 보니 교사 또한 학생들과 같이 지쳐가기 일쑤다.

이와 같은 이유를 피하기 위해 게임 요소가 깃든 도전 영역, 경쟁 영역 활동들을 수업에 녹이면 지나치게 재미에 초점이 맞춰져 신체 활동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그러던 중 국민체육

진흥공단에서 체육 비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상현실 기술은 컴퓨터와 같은 인공지능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실제와 유사한 시간과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고민 하던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 비슷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수업에 활용해보기로 했다. 마침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원격 수업으로 변경되면서 학교에서 다양으로 구매한 스마트기기가 충분히 있었기에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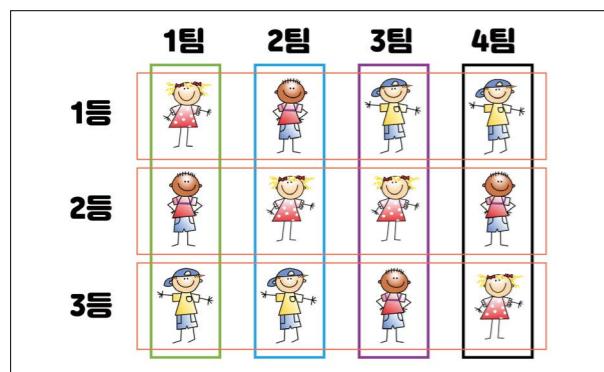
재미도 느끼고, 건강도 얻는 체육 활동

'Active Arcade' 앱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하여 카메라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해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앱이다. 앱 내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어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골고루 기를 수 있다.



'Active Arcade'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즐겨 활용하는 수업 모형은 협동 학습 모형 중 팀 게임 토너먼트(Team Game Tournament, TGT) 모형이다. 이 모형은 운동 능력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그룹 지어 경쟁하기 때문에 비교 의식 없이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또 팀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들을 공유하고 함께 연습하는 활동을 통해 팀원들 간 협력과 소통이 가능하다. 건강과 체력은 물론 재미와 협동심까지 기를 수 있는 TGT 모형은 팀을 구성하고 팀에서 경쟁을 통해 구성원의 순위를 정한다. 그 후 각 팀의 같은 순위끼리 경쟁해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총점수에 따라 팀 순위를 결정하는 수업 모형이다.



TGT 모형은 팀 내 경쟁 결과와 팀 간 경쟁 결과로 이뤄진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 수업을 하며 느낀 점이 많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이 쉽다. 땀을 뺄낄 흘리며 즐겁게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교사도 덩달아 신이 난다. 즐겁게 참여하다 보니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두 번째는 수업 준비가 편하다. 일반 체육 수업에서는 다양한 교구를 준비해야 했지만 본 수업에서는 스마트기기만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어 날씨의 제약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이 많은 수업이 좋은 체육 수업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수업 역시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기를 활용한 수업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체육 수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이 교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글을 쓴 신승욱은 서울조원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티처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좋은 체육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승욱쌤이 귀띔해주는 Active Arcade 수업 차시

1차시 건강 체력 조사하기

2차시 Active Arcade와 친해지기

3~4차시 원격 활동 및 팀 내 경쟁

5~6차시 팀 간 경쟁

7차시 소감 발표 및 운동 계획 세우기

1차시 건강 체력 조사하기

학생들은 체력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적다. 체력에 관한 사전 지식을 공유하고, 체력 증진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 외에도 체력이 부족해서 불편했던 경험 또는 체력이 좋아서 도움이 됐던 경험을 다양하게 나눈다.



2차시 Active Arcade와 친해지기

2인당 1기기를 제공해 교실, 체육관 등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한다. 앱 내 13가지 체육 활동을 마치면 활동별로 관련 있는 건강 체력 및 운동 체력의 종류를 짚고 함께 공유하고 발표한다.



3~4차시 원격 활동 및 팀 내 경쟁

· 가정에서도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가정 활동 시, 충간소음에 주의하도록 펼히 안내한다. 충분히 활동을 익히고 나면 종목을 선정하고 팀을 구성해 팀별 기록을 측정한다. 점수를 잘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때 학생들의 체력 수준에 따라 팀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PAPS 측정 결과 혹은 기초 체력 측정 결과를 활용하면 좋다.

·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균력 및 근지구력을 증진할 수 있는 'Laser Dodge' 종목을 선정했다.



5~6차시 팀 간 경쟁

팀 내 대결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순위끼리 경쟁한다. 기록 측정이 끝나면 점수를 합산해 우승팀을 결정한다. 1등은 5점, 2등은 4점, 3등은 3점 순이다. '화면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 모든 학생이 관전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학습 분위기 조성과 협동심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다.

3. 소감을 적어주세요(재밌었던 점, 아쉬운 점)

정말 재밌었다. 다음에 또 하면 좋겠다.
운동이 개인 좋아서 재밌었다.

4. 부족한 체력을 기르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근력을 기르거나 운동에 몸을 활기게 할 운동

7차시 소감 발표 및 운동 계획 세우기

소감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체육 활동을 통해 본인에게 부족한 체력의 종류를 생각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

GOOD! 😊





'건강한 은평, 행복한 은평!'을 내걸고 스포츠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는 은평스포츠클럽. 연혁은 짧지만 새로운 종목 발굴 및 프로그램 개설, 지역 체육 시설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저렴한 이용료 강점

은평스포츠클럽은 2021년 3월 법인 설립과 스포츠클럽 대의원 총회 승인을 거쳐 운영을 시작했다.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를 거점으로 총 6개 공공 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 체육관 2곳과도 연계해 동호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이다.

은평스포츠클럽의 강점은 다른 체육시설에 견줘 월등히 저렴한 이용료다. 최초 가입비 1만 원을 납부하면 프로그램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2개 종목을 수강하면 10%, 3개 종목 이상 수강하면 20%의 할인이 적용된다. 현재 수영, 1대1 PT, 당구, 야구, 축구, 풋살, 필라테스, 아쿠아로빅, 탁구동호인반 등의 프로그램을 운

영 중이며 이 중 수영과 아쿠아로빅, 풋살 등의 인기가 높다. 최근 자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수영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회원이 88.8%에 달했고, 지인에게 수영을 권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려 94.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풋살 종목도 수강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답변이 100%를 차지했을 정도다.

야구 교실의 선호도도 높다. 양주시 장흥생활체육공원 내 은평구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조성한 전용 야구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동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COMIC BOOK →

“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이 함께 이용하는 은평스포츠 클럽은 더 많은 은평구 지역주민들이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 저변 확대 위한 노력

은평스포츠클럽이 문을 연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회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총회원 수는 등록 회원 기준으로 약 300명 정도이며 회원들의 연령대는 다양한 편이다.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선수 출신, 주요 대회 입상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수준 높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은평스포츠클럽은 추후 엘리트 체육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 엘리트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육시설이 확충되는 대로 배드민턴, 테니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배드민턴 종목은 엘리트 육성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구 종목의 리그전이나 컵대회를 추진함으로써 동호인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난해 법인 설립 이후 올해부터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돌입한 은평스포츠클럽은 이제 막 출발선을 끊은 상태로 스포츠클럽의 존재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은평구의 공공스포츠클럽 유치에 힘써온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민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평스포츠클럽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며 은평스포츠클럽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해 힘차게 뛰어 올린 은평스포츠클럽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한다. ☈

온평스포츠클럽 활기차고 보람찬 하루!

재밌는 스포츠 생활 속으로 들어가보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위한 길 중심에 서다

홍보실 권진희 주임 & 도핑검사부 오민진 주임



‘약한 국민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외치며 지난 2006년부터 힘차게 나아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도핑검사부 오민진 주임과 홍보실 권진희 주임이 소개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KADA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006년 11월 13일, ‘도핑으로부터 선수 건강 보호, 공정한 스포츠 기여’라는 미션 아래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 환경 조성의 중심에서 있는 대한민국 유일 도핑방지기구다.

안녕하세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오민진 주임 · 안녕하세요. 2021년에 도핑검사부에 입사한 오민진 주임입니다. 도핑 검사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요. 도핑검사부는 도핑 검사에 관한 배분 계획 수립 및 이행, 후속 조치, 도핑검사관 인력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권진희 주임 · 반갑습니다. 2021년에 입사한 홍보실 권진희 주임입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온·오프라인 PR, 도핑방지 광고 등을 맡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세요.

오민진 주임 · 약물로부터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도핑 ‘적발’을 위한 곳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방지’를 위한 일들을 하는 곳이죠. 도핑 방지 교육부터 검사 및 조사, 결과 관리, 그리고 도핑 방지를 위한 연구, 국내외 협력 등을 추진합니다.

권진희 주임 · 스포츠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확립과 스포츠 정신 고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법인이에요. 도핑 방지 활동은 물론이고 공정, 협력, 리더십, 즐거움 등의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죠.

채용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오민진 주임 ·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이뤄지고요. 인성 검사, NCS 시험, 보고서 작성 능력 평가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면 영어 면접을 포함한 실무 면접이 있어요. 세계도핑방지기구를 비롯해 해외 유관 기관들과 교류가 잦다 보니 영어 실력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임원 면접을 봅니다.

권진희 주임 · 우리 위원회는 직무 중심으로 채용합니다. 원하는 직무의 채용 공고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들이 채용 공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아요. 또 영어나 PC 활용 자격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요.

입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권진희 주임 · 홍보 직무로 입사한 저는 관련 경험을 어떻게 보여줄지 많이 고민했어요. 기존 SNS 채널과 뉴스레터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연구했죠. 지원 직무에 맞게 능력과 강점을 보인 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민진 주임 · 스포츠 관련 기관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관련 기관들 모두 행정이 가장 기본적이기에 입사할 때는 물론 회사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됐죠. 뒤처지지 않으려고 공부도 꾸준히 했습니다.

입사 준비에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요?

권진희 주임 ·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정확한 기관 명칭입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지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한국도핑위원회’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오민진 주임 · 입사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면 검색을 통한 정보 수집도 좋지만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숙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원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답니다.

입사 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권진희 주임 · 직원 복지에 감탄했어요. 그중 하나로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영어 전화 교육을 통해 회화 실력을 쌓는 분도 계시죠. 이외에도 PC OFF제, 유연 근무제가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야근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민진 주임 · 신입 사원 교육 때 각 부서가 어떤 사업과 업무를 하는지 배웁니다. 교육받는 내내 조직과 업무에 애정이 있다는 걸 아주 많이 느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의 제 미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입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권진희 주임 · 자신이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불도저’ 같은 사람이 돼야 해요. 담당 사업에 대해 그만큼 자신감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오민진 주임 · 일하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곧 동기 부여가 되더라고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저를 전문가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분명 느낄 거예요. 배움의 자세만 있다면 어느 분이든 이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스포츠 데이터댐'은 빅데이터를 통한 스포츠산업계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의 새로운 바람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진행됐던 퍼스널 트레이닝이 변하고 있다. 피트니스센터에 가지 않고도 강사와 교감하며 코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사가 지정해준 운동을 하면 휴대폰 영상 촬영을 통해 바른 자세로 했는지,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하는지도 분석해준다. 인간의 움직임을 데이터화해 기존 데이터셋(Data set)와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의 등장 배경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 이전부터 질병의 진단 및 치료와 함께 건강 증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산업화되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모바일 기반 헬스케어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 확대가 산업화를 촉진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분야가 가속화됐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동의 제한이 생기자 스포츠업계에 불황이 찾아왔다. 시설 내 집합 금지 조치로 피트니스센터, 태권도장, 요가센터 등의 매출이 일상 대비 91%나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피트니스 관련 사업 70% 이상이 임시 휴관 상태가 됐으며 적자 운영으로 폐업도 속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주기적 발병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스포츠 코칭 서비스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기존에 진행됐던 비대면 코칭 서비스들이 활성화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국가 과제로 비대면 스포츠 코칭 통합 플랫폼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 현황

대표적인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는 유튜브다. 유튜브는 누구나 채널을 개설해 촬영 및 편집 영상을 업로드해 영상을 공유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유튜브에 운동 영상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보고 따라서 운동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땅크부부(Thankyou BUBU)>라는 유튜브 채널은 부부가 함께 나와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맨몸운동 위주의 홈트레이닝 동작을 보여주며 구독자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구독자만 305만 명이고 5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신기술 없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성공한 사례다.

2020년에는 엘지 유플러스와 카카오VX가 제휴해 동작 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인 <스마트 홈트>를 출시했다. 4개 각도에서 표준 영상을 볼 수 있으며 고객의 운동 동작을 인식해 인공지능(AI) 코치가 피드백을 해준다. 운동 플래너 기능과 운동 결과 데이터를 제공해 개인 트레이너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스마트 홈트 화면



동작인식을 통해 AI코치의 피드백 제공



4개 화면으로 다각도 시청

라이크핏 화면



유사한 서비스로 <라이크 팟(Like Fit)>이 있다. 사전 동작 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특성을 프로파일링하고 운동 중 AI가 3단계로 자세를 평가해 피드백을 해준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코치와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상 통화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에서 하는 서비스인 <리트니스(Litness)>도 있다. 대면 코칭 서비스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뤄지며 일대일뿐만 아니라 그룹 운동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사운드 짐(Sound Gym)>은 오디오를 활용한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다. 실시간 운동을 할 때 영상을 보면서 제대로 따라 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해 음성으로 트레이너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이다. 피트니스센터에서 스쿼트, 런지 같은 동작을 지도할 때처럼 트레이너가 구호를 붙여주며 자세를 바로잡는 피드백을 해준다. <키핏(Keepfit)>은 피트니스센터, 태권도 도장, 요가원 등의 민간 시설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개발됐다. 아프리카TV와 KT, 스포츠인텔리전스 등 의 분야별 전문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비대면 스포츠 코칭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쌍방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실시간 방송 시스템과 동작 인식 센서 기반 수업 표준 영상 및 측정 평가 솔루션을 탑재해 민간 시설에서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다.

해외에서는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라는 별칭을 가진 <펠로톤(Peloton)> 서비스가 있다. 가정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피트니스센터에서 진행됐던 스파닝을 할 수 있다. 강사가 가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수십 명의 참가자를 격려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비대면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에 이용자별로 칼로리 소비 정도와 운동 강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페이스 조절까지 가능하다. 핵심적인 데이터들이 강사에게 실시간으로 보이면서 대면 서비스를 할 때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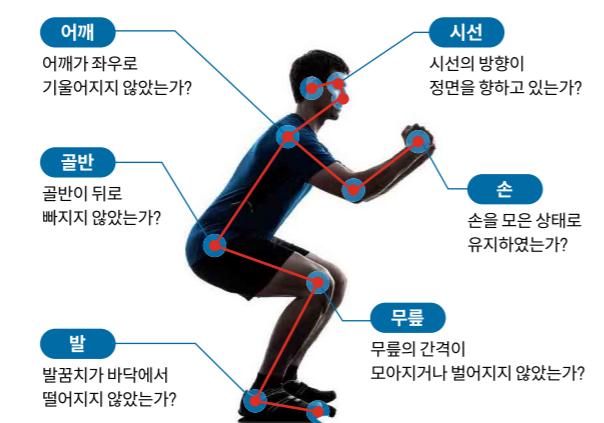
전신 거울 형태의 화면을 통해 교육 영상과 본인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미러(Mirror) 서비스와 더 나아가 피트니스센터에 있는 기구들까지 탑재해 가정에 스포츠 헬스장을 구현하는 토널(Tonal) 서비스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의 플랫폼화와 향후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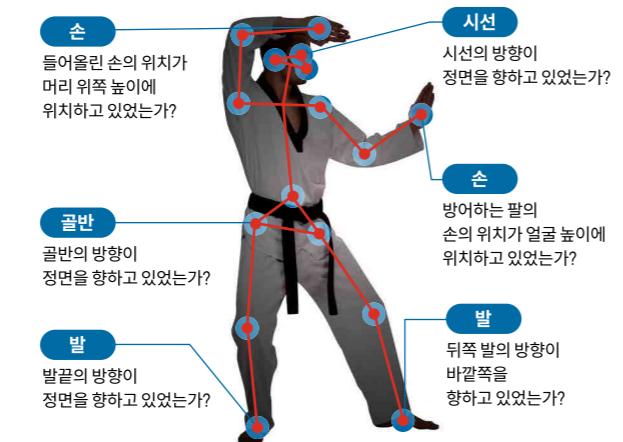
빅데이터, 네트워크, AI,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파편화



Action Point 1. 스쿼트



Action Point 2. 바위밀기



표준 영상 - 측정평가솔루션 예시

돼 있던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들이 플랫폼화되고 있다. 이용자들의 측정 평가 서비스만 제공하던 곳에서 영상 기반 비대면 코칭 서비스, 더 나아가 AI 피드백 및 관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가 코치에게서 이용자로 단방향적이었다면 지금은 쌍방향, 더 나아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민간 스포츠 시설의 코치와 이용자들을 이어주고 영양, 심리, 역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화상커뮤니케이션 기반의 통합 서비스 플랫폼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교육 프로그램과 일정 등이 비대면으로 실시간 소통되고 있으며 기존 화상회의 기능과 음성 지도가 가능한 실시간 피드백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트니스센터, 요가원, 태권도 도장 등의 민간 시설에서 정보통신 기술 및 영상 촬영 등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보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회원 관리, 회비 결제, 직원 관리 등의 운영 관리 서비스도 통합되는 추세이다.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는 방향으로 서비스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앞으로 비대면 스포츠 코칭 통합 플랫폼 서비스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공간을 융합한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다. 대면 수업이 가능한 시점에서도 비대면 요가 대회, 피트니스 대회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과 시설, 콘텐츠, 그리고 서비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단위 비용을 줄여주는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다. 조만간 대부분의 스포츠 코칭 공간에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쌍방향 화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들이 들어갈 것이기에 스포츠 코칭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찌 되었든 첨단 기계와 친해져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비대면 수업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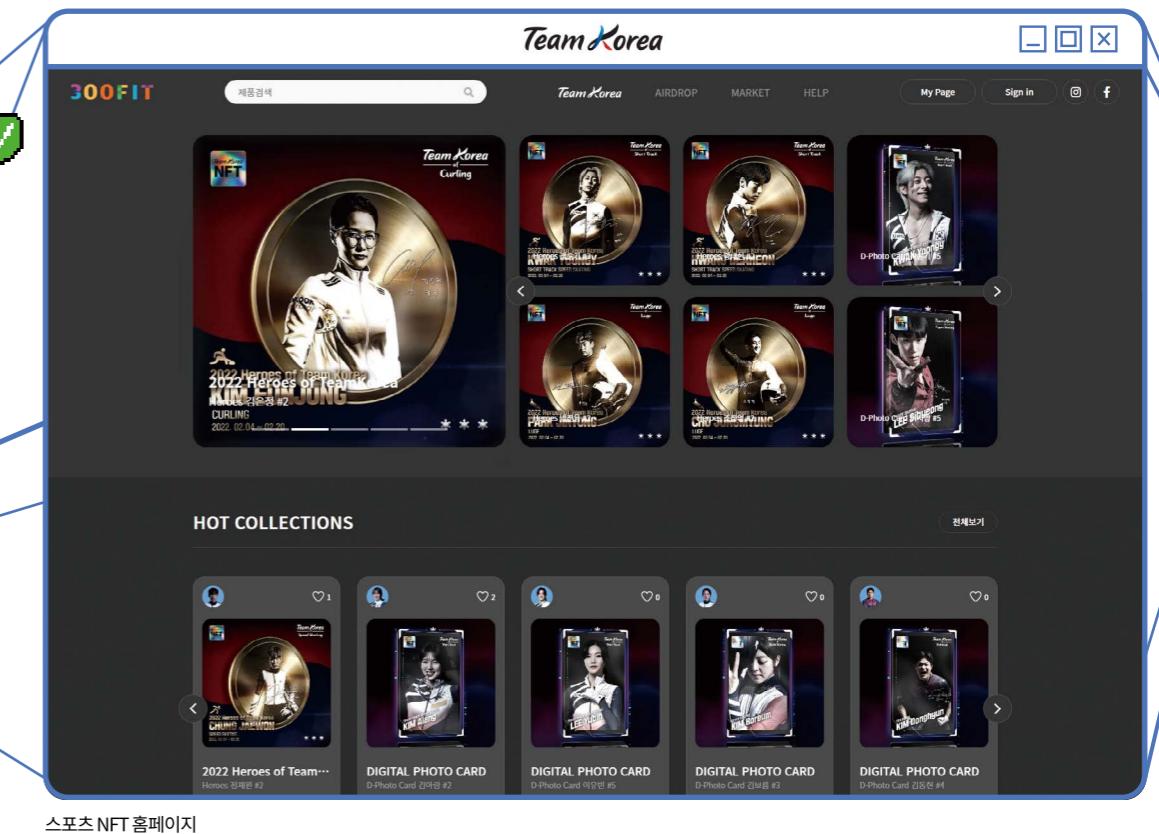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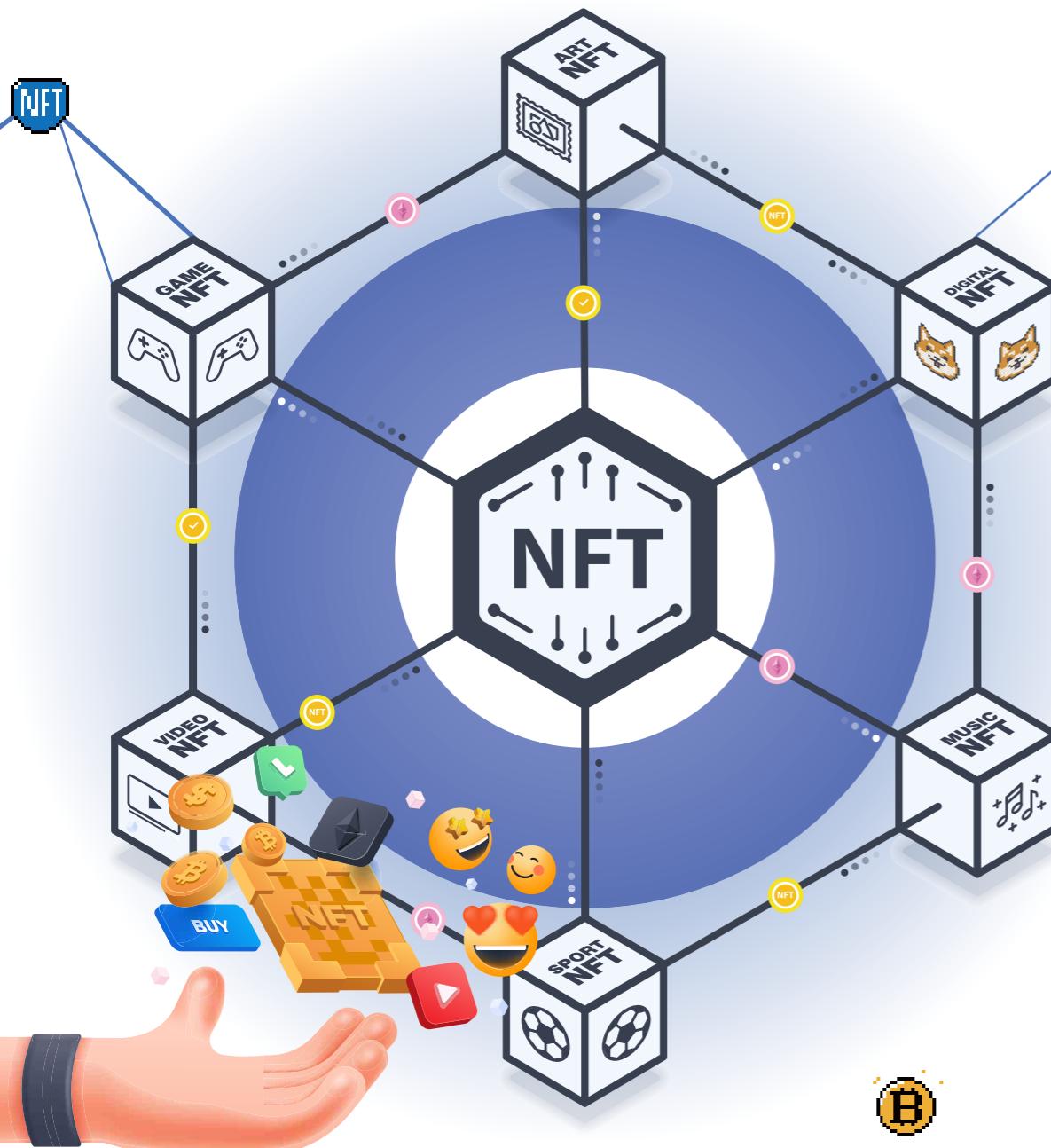
표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강사가 시범을 보이지 않아도 고객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령을 할 수 있다. 강사는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

글을 쓴 오자왕은 스포츠 산업 관련 지식과 인재의 허브인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에서 다양한 스포츠 분야 컨설팅을 진행했다. 스포츠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사명을 가지고 (주)스포츠인텔리전스를 운영 중이며, 한국체육학회,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해 여러 스포츠협회에서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스포츠와 NFT의 뜨거운 만남 법·제도상 괜찮을까?

국내외에서 스포츠 NFT의 열기가 뜨겁다. NFT 사업자도, 선수들도, 팬들도 모두 열정적이다.

하지만 법률적 및 제도적으로 짚어볼 부분들도 있으니, 차분히 살펴보자.



스포츠와 NFT(Non-Fungible Token)의 만남

대한체육회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단에 관한 NFT 상품들을 기획 및 출시했다. 기존에도 미국의 NBA Top Shot, 우리나라의 Dooverse 등 민간 영역에서 발행된 스포츠 NFT 사례들은 있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단 구성 및 지원을 총괄하는 공공 단체가 주도한 NFT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제는 스포츠 NFT 열기가民間, 공공 가릴 것 없이 뜨겁다. 그 열기의 시작을 살펴보자면 NBA Top Shot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NBA의 유명 농구선수들에 관한 NFT 발행이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자극해 대성공을 이뤘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Dooverse, NFTSTAR, MetaGalaxia 등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NFT들이 기획 및 발행됐다.

스포츠 NFT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져서 타이거 우즈의 사인을 NFT로 발행하거나(Autograph), NFT로 발행된 선수 카드를 구매하여 팀을 꾸리는 등 게임 요소와 접목한 경우도 등장했다(Sorare). 이처럼 스포츠 NFT의 열기가 뜨거워져 가는데 법률적 및 제도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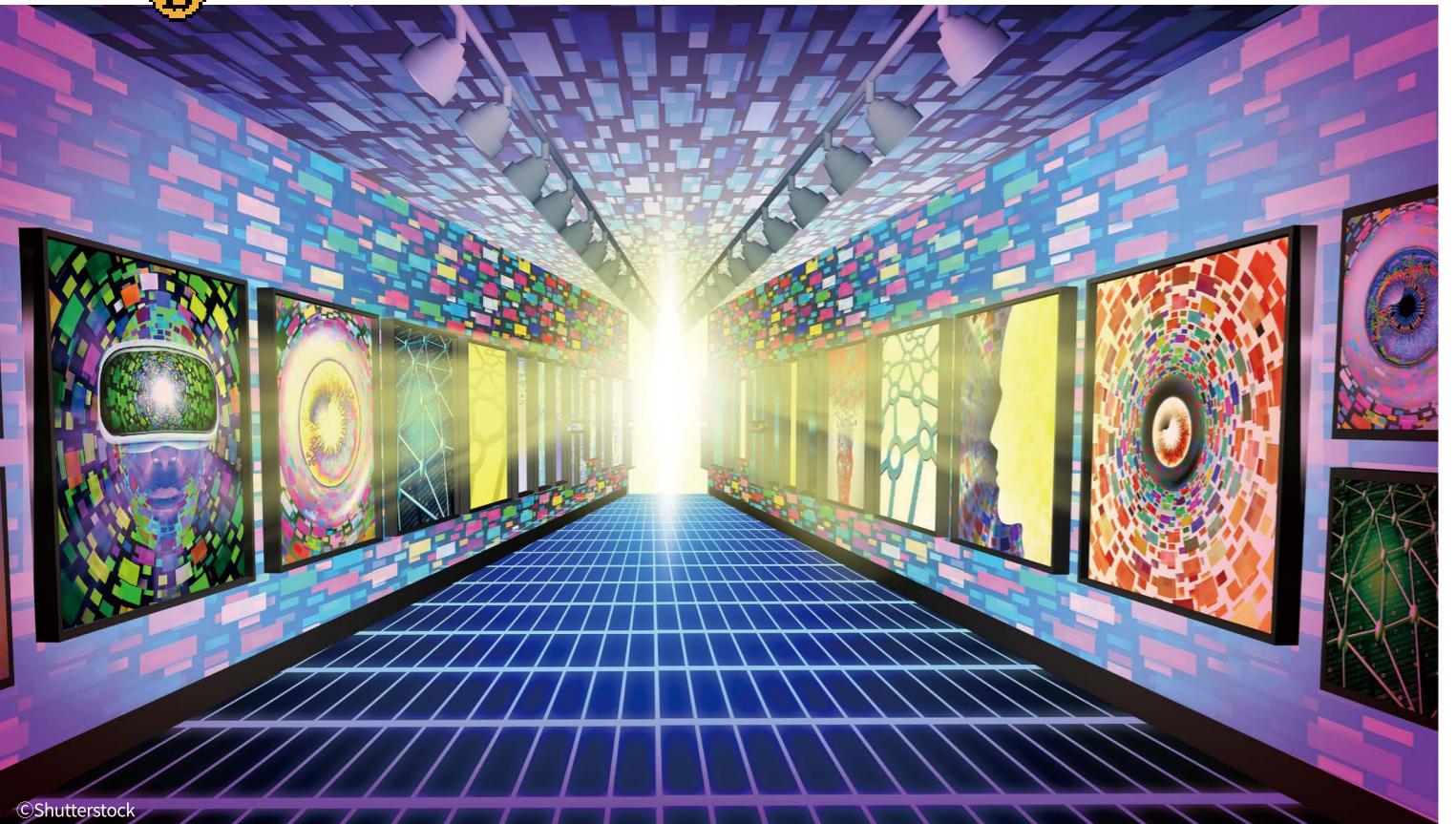
NFT의 개념과 가치

A라는 사람이 유명 스포츠 선수가 득점왕이 되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절묘하게 촬영했다고 생각해보자. 위 최초 파일은 찍힌 선수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것을 촬영한 A가 어떤 사람인지, 해당 순간과 촬영의 순간에 어떠한 극적인 스토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다(저작권과는 별도로 최초 파일 자체의 가치). 그러나 위 동영상은 그 형태가 컴퓨터 파일이므로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본들과 최초 동영상 파일을 구분할 수가 없다. 결국 최초의 디지털 파일은 무수한 동영상 파일 중에 하나이므로 경제적인 가치는 0으로 수렴한다. 희소성이 없다. 무제한 공급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음을 상기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팬 입장에서는 최초 동영상 파일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소장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최초 동영상 파일을 복제본과 기술적으로 구별해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기초로 거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최초 동영상 파일을 특정할 수 있는 전자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올린 후 그 증명서를 발급받

고(이것은 유일하다. 이 증명서를 기억해두자) 이 증명서를 사고팔 수 있다면 최초 동영상 파일의 창작자도 마치 현실 세계의 그림 원본을 ‘파는 것처럼’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례의 유명 스포츠 선수 팬 입장에서 위 선수가 득점왕이 되는 순간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원본성을 증명서로 확인받을 수 있다면 이를 구매하여 간직하기도 하고, SNS 등을 통해 뽐내기도 하며, 증명서를 보유한 동지들끼리 그들만의 리그 문화를 만들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한 것이 바로 NFT, 위에서 설명한 증명서다.

물론 그림 원본 자체를 파는 것과 전자증명서(NFT)를 파는 것은 일대일로 대비되지 않는다. ‘현실 세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와 ‘가상 세계에 소스 코드로 구현되는 컴퓨터 파일’이라는 본질적인 차이에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최초성, 원본성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능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 같다.



스포츠 NFT, 유의할 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스포츠 NFT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어 볼 법률적, 제도적 쟁점들이 있다. 특히 스포츠 NFT를 기획 및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더욱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다. 우선 퍼블리시티 침해 문제를 짚어보고, 다음으로 에이전트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본 다음, 저작권법 등과 관련된 문제도 간단히 알아보자.

첫째로, 퍼블리시티 침해 문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형성된 법리로서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퍼블리시티 부정사용행위를 추가하였다(동법 제2조 제1호 타목). 그대로 옮기자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Shutterstock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영웅들에게 수여하는 메달 NFT

Heroes

김아랑



Heroes
곽윤기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스포츠 선수들이 바로 동법 제2조 제1호 타목 중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유명 스포츠 선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선수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NFT로 발행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되어 법적 책임(손해배상 및 사용금지, 폐기 등)을 질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자.

둘째로, 선수 에이전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에이전트를 두거나 소속사(에이전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에이전트들은 통상적으로 선수의 대회 출전이나 방송 출연 등을 조율하고, 이에 관한 금원의 수령, 정산, 지급 등을 대리한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폰서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스포츠 선수들이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운동기구 등을 제한하며 언론이나 디지털 파일의 노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따라서 스포츠 선수와 관련된 NFT 기획 및 발행을 하고자 할 때도 선수뿐 아니라 해당 선수의 에이전트 및 에이전시, 나아가 스폰서 업체들과 NFT 발행 대상 콘텐츠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저작권법, 인허가,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스포츠 선수들의 운동 영상을 촬영한다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 동영상에 담긴 여러 피사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기초로 NFT를 발행할

때는 위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등이 수반되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저작권자인 작가의 동의 없이 작가의 작품이 NFT로 발행돼 3억 원 이상의 값으로 판매되어 분쟁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NFT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대상 NFT에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데 이러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이다. 나아가,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에 해당하여 동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등이 필요한지,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등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인허가 및 규제 관련 문제들도 있다. 스포츠 NFT의 기획 및 발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될지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Shutterstock

1988년
서울올림픽
공동 개최 논쟁

88 서울올림픽을 둘러싼 남북의 동상이몽



88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삶과 위상을 높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동서 화합과 냉전 종식을 이끌어낸 세계 평화 올림픽을 치른 한국은 더 이상 전쟁과 폐허의 가난한 나라가 아닌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됐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로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라는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정작 북한은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아 반쪽짜리 평화 올림픽이 됐다.

동서 화합의 장, 냉전 종식의 신호탄, 그러나 남북은 여전히 냉전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하철이 4호선까지 개통되고 올림픽대로가 건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서울 주변 무허가 판자촌을 없애 깨끗한 서울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폭력도 동원됐지만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대의에 곤륜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고 급성장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 특히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과 1984년 LA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으로 끝나면서 더 이상 올림픽이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 여론이 형성됐다. 그랬기에 88 서울올림픽은 동서 화합의 장과 세계 평화 올림픽의 상징이 돼야만 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88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다.

남과 북은 올림피아라는 중요한 계기를 왜 살리지 못했을까? 당시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부위원장이었던 리차드 파운드(Richard W. Pound)의 회고록과 우리 외교부 공개 문서, 남북의 언론 기사들을 비교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발견된다. 1970~80년대는 미·소 냉전의 한복판에 있었던 시대다.

남과 북도 체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UN 등 국제사회에서 치열하게 다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올림픽 유치로 남한은 전면적 성장을, 북한은 좌절을 맞이하는 국면이 됐다. 1981년 9월 올림픽 유치부터 1988년 9월 올림픽 개회식까지 7년 동안 남한은 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지상 과제를 안고 있었다. IOC도 같은 입장이었다. 반면 북한은 남한의 올림픽 유치를 한반도 분단의 고착과 UN 단독 가입을 위한 포석으로 보며 국제사회 여론을 주시하면서 대

응했다. 남한과 IOC를 상대로 처음에는 개최지 변경 주장으로, 다음에는 남북 공동 개최론으로 맞서 나갔다. 북한의 주장에 남한은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북한의 책동이라는 프레임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 과정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두 주장의 배경에는 국제사회 여론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최지 변경 요구와 남북 올림픽 공유에 관한 기대

1981년 9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88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한국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나라 인지에 관한 의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권 탄생의 문제점, 한국 내 소요 사태, 분단국가 등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들로 인해 제기된 문제였다. 1984년 넬슨 파이유(Nelson Paillou) 프랑스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 회장은 개최지를 바르셀로나로 옮길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개최지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인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이 88 올림픽 인수 국가로 나서기도 했다. 사마란치(Samaranch) IOC 위원장도 이에 경각심을 느껴 여러 계획안을 두고 고심했다. 대안으로는 서울이 스스로 개최권을 반납하는 안, 서울 개최를 1992년으로 연기하는 안, 그리스를 개최 장소로 정하고 매회 개최지를 옮기지 않는 올림픽 영구 개최

안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IOC에 개최지 변경 불가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 개최지 변경에 관한 여론은 1985년이 돼서야 사그라들었다. 대신, 1984년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는 88 서울올림픽이 분단국가에서 치러지는 만큼 남북이 올림픽을 공유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탈리아 외무장관 줄리오 안드레오티(Giulio Andreotti)는 올림픽 일부 종목을 북한과 공유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서독의 호르스트 다슬러(Horst Dassler) 아디다스 회장도 우리 정부 인사들에게 북한에 종목을 나누어 줄 것을 제안했다. 동독의 만프레드 에발트(Manfred Ewalt) NOC 위원장도 멕시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에서 북한과 종목을 나눠 개최해 위기에 처한 올림픽 운동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자 사마란치 위원장도 북한과 올림픽을 공유하는 문제에 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남북 올림픽 공유 의견에 불을 지핀 사람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다. 그는 1984년 11월 29일, 사마란치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다. 서울올림픽은 남북통일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남북 양 지역의 개최 가능성과 동등한 부분에서 공유하는 용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88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됐다



88 서울올림픽은 160개국이 참가해 올림픽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릉라도5.1경기장

북한은 88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와 89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대비해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지었다(사진_동아일보DB)

이를 계기로 여러 사회주의 국가가 나서서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주장하며 IOC를 압박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 여론에 사마란치 위원장은 남북체육회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985년 10월, 남북 NOC 대표들을 스위스 로잔으로 불러들였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박철언이 대북비밀특사로 파견돼 북한의 한시해와 1985년 7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42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특사의 첫 임무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였지만 그 계획명이 '88 계획'임을 보면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저의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북한 관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체육회담의 의도는 북한을 회담에 불잡아 두는 것

1985년부터 1987년까지 IOC 중재로 스위스 로잔에서 4차례 열린 남북체육회담은 철저히 남한과 IOC의 협력 관계에 의해 진행됐고, 북한을 올림픽에 개별팀으로 참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고, 동시에 다른 공산권 국가들의 여론에 의해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으로 냉전 해체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남북이 여전히 휴전 상태의 불안한 환경이었고, 올림픽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길 바랐으며, 1980년, 1984년 두 번의 파행된 올림픽이 정치적 대결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라는(올림픽 운동의 회복)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한은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개최지 변경 움직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주장을 모두 북한의 올림픽 방해 책동으로 규정했다.

남한의 개별팀과 북한의 단일팀 전략은 1963년 이후부터 일관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남한으로서는 88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는 상상하기 힘든 제안이었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 셈이었다. 특히나 IOC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1984년 LA올림픽이 파행되면서 88 서울올림픽에서는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북한이 이 회담에 참여한 목적은 남북의 올림픽 단일팀 참가와 공동 개최(두 개의 주최국)였으나, 이에 대해 IOC와 남한은 몇 개 종목을 떼어주는 분산 개최(하나의 주최국)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IOC와 남한은 북한에 2~3개 종목, 많게는 5개 종목을 떼어 줄 의사로 보였으나 북한은 그것으로 체면(남북 공동 개최 명분)을 세울 수 없으니 23개 종목 중 인구 비례 기준을 들어 8개 종목을 원했고, 남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논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그런데 이 회담의 결렬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사마란치 위원장이 남북체육회담을 앞두고 만난 자리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은 두 가지를 약속했다. 북한에선 결코 올림픽 경기가 없으리라는 것과 이 회담이 북한의 선전용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다.¹⁾ 애초부터 북한에 경기를 배분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파운드 IOC 부위원장의 회고록에도 'IOC는 북한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협상을 확대하며 결국 북한이 IOC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IOC는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 처음부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회담 방향과 결과를 미리 결론지어 놓고 북한을 로잔으로 불러들인 셈이다. 즉, 회담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 과정에서 공산권 국가들의 보이콧 선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올림픽 참가 명분을 쌓아가는 계획에서 회담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가 88 서울올림픽에 걸었던 기대

88 서울올림픽 초기에 대두됐던 개최지 변경 요구나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와 같은 주장은 애초부터 남북 분단 문제에 관심을 가진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여론에 의해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으로 냉전 해체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남북이 여전히 휴전 상태의 불안한 환경이었고, 올림픽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길 바랐으며, 1980년, 1984년 두 번의 파행된 올림픽이 정치적 대결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라는(올림픽 운동의 회복)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한은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개최지 변경 움직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모두 북한의 올림픽 방해 책동으로 규정했다. 한편에선 남북이 올림픽을 공유할 것처럼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북한의 올림픽 방해에 대비한 군사 안보의 경각심을 높이며 대

응해 나갔다. 1986년 김포공항 폭발 사건(조작 논란이 있음)²⁾, 같은 해 북한의 금강산 댐 개발에 대한 평화의 댐 건설(대국민 사기극 판명) 등은 모두 북한의 올림픽 방해를 위한 테러 내지는 수공 침략 계획이라며 안보 불안감을 높였다. 이렇듯 북한과 관련된 안보 사건은 북한 악마화와 대북 적대감으로 이어졌고, 북한에 의한 올림픽 공동 개최의 명분이 약화되었다. 또한 북한의 올림픽 방해에 대한 안보 불안을 이유로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력이 대거 한반도로 집중하게 됐다.

이러한 때, IOC 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대신 휴전을 제안한 메시지가 있었다. 4차 남북체육회담(87.7.14~15.)이 결렬되고 난 후, IOC 법률 고문을 담당했던 미국 출신 사무엘 피사르(Samuel Pisar)가 1988년 5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내용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그의 주장은 남북과 IOC 간의 교섭에서 열쇠는 한국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몇 종목, 공동 개최라는 표현,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동서는 화해하고 있고, 미·소 어느 쪽도 이러한 분위기를 해치기를 원치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사르는 노태우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고대 그리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올림픽 기간 중 군사적인 위협과 정치적 비난을 중지하는 휴전 제의를 권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한국의 현 심리 상태는 너무 냉혹하다며 한국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북한을 창피하게 하는 등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한국이 가지

고 있는 큰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제한된 영역에서 체육 및 여타 접촉을 가져올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접근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신을 받고 난 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북한을 향해 남북 교류와 관계 발전에 관한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피사르의 구상은 기존 IOC 입장과 다르며 우리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양보를 해왔으며 마지막까지 북한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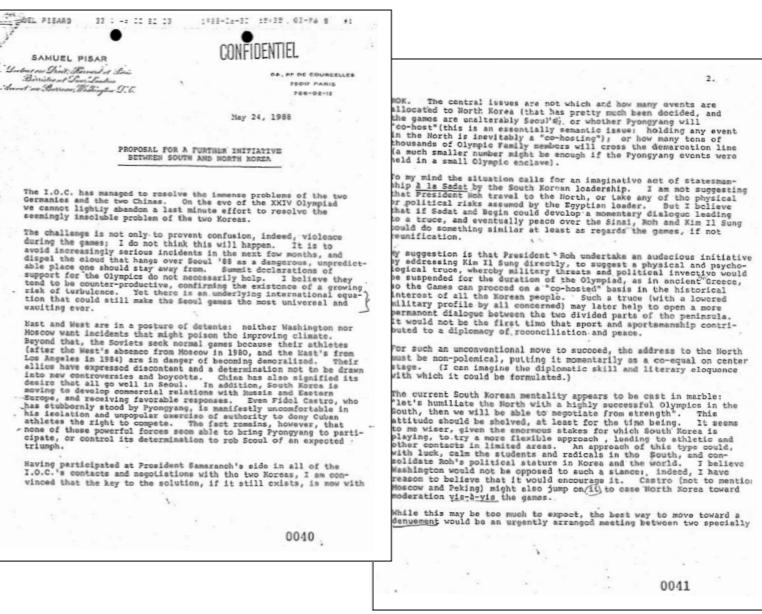
어찌 보면 7·7 선언은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동시에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결국, 88 서울올림픽은 동서화합의 장이자 냉전의 해빙모드를 가져온 평화의 올림피이었지만 정작 남북이 함께하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내지 못했고 북한에 대한 혐오와 불신으로 점철된 1980년대를 보내게 됐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88 서울올림픽은 북한이 배제된 역사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을 수용한 역사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1)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 94.

2) 김포공항 테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시사IN, 20.1.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0>

글을 쓴 최진환은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논문으로는 <88 서울올림픽 공동주최 논쟁에 관한 연구>, <남북한 체육교육과정 비교연구>, <1991년 남북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등이 있다.



◀ 1988년 5월 24일,

피사르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했던 서신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 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2, 40~42쪽

Empowered and highly authoritative emissaries of South and North Korea, perhaps even the two leaders in person, preferably in the presence of President Samanach. Messengers of peace, with ready access to Roh, Kim Il Sung, Castro, Washington and Moscow are, fortunately available and can be easily activated for such a mission.

Samuel Pisar

홈트 만난 발레, 예술을 넘어 운동이 되다

홈트(Home+Training)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생소했던 운동들이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귀족의 춤, 극장 예술이라고 여겨온 발레도 마찬가지. 우아한 몸짓을 펼칠 공간만 있으면 한 마리 백조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성장기 아동을 위한 발레부터 자세 교정을 위한 성인 발레까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을 위한 발레는 없다.



올곧은 자세에 사뿐한 스텝, 가쁜한 몸짓

이탈리아가 기원인 발레는 라틴어 'Ballare(춤추다)'가 어원이다. 이후 이탈리아어 'Ballo(무용)'로 바뀌었고 한 차례 더 변형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Ballet(발레)'가 됐다. 이름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 발레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삶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5세기, 이탈리아 귀족사회에서 시작한 발레는 16세기 때 프랑스로 전파되면서 귀족사회의 필수 교양으로 등극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연극 대사를 대신해 춤으로 이뤄진 무용극 예술로 알려져 있다. 클래식 음악에 몸을 맡겨 리듬을 따라 나풀거리 는 발레리나와 발레리노가 떠오르지 않는가?

발레는 고난도 기술을 겸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편견으로 인지도에 효과가 있다. 이는 성장 단계인 유년기에 가장 효과적이다. 음악에 맞춰 익힌 동작을 응용해 새로운 동작을 만들거나 이어지는 동작을 고민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상력도 길러진다.

성인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발레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자세 교정과 유연성 향상, 근육 강화를 위해 배우기도 한다. 동작이 크거나 격렬하지 않아 운동량이 적은 운동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평소 잘 쓰지 않는 속 근육 중심의 운동이기에 다양한 근육을 자극하며 운동 효과를 보인다. 배우들이 발레로 자세를 교정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신체 균형이나 거북목 교정 등의 이유로 발레를 찾는다. 특히 직장 생활로 평소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홈발레를 즐겨한다. 운동 장비가 따로 없어도 공간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홈발레의 큰 장점이다. ☺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발레

토슈즈(Toeshoes)와 하늘거리는 발레복은 어린이의 시선을 빼앗기 십상이다. 과연 의상만 그려랄까. 무용수의 우아한 손짓과 몸짓은 분명 아이들의 발레를 향한 꿈을 더욱 키웠으리라. 시작적

영상으로 배우는 홈발레

발레테라핏(Ballet Thera Fit)

#구독자 17.3만 명 #평균 조회수 8,231회



'발레테라핏'은 발레로 체형을 교정한다는 뜻을 가진 홈발레 유튜브 채널이다. 요가와 같이 의상과 매트, 공간만 있으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왕초보를 위한 발레 기초 과정, 전신 유산소 운동이 가능한 발레 동작, 자세 교정을 위한 발레를 포함해 총 다섯 가지 주제로 발레를 익힐 수 있다. 특히 이 채널은 자세 교정과 전신 유산소에 집중되어 있어 다이어트와 체형 교정을 원하는 이들이 많이 구독한다.

수빈쌤_홈발레

#구독자 3.62만 명 #평균 조회수 9,164회



이 채널은 발레에 관해 전혀 모르는 초보자도 따라 하기 쉬운 영상들이 많다. 반면 다른 홈발레 채널과 달리 태교 발레, 산후 스트레칭과 같이 임산부를 위한 발레 동작도 있다는 점이 이 채널의 차별점이다. 집에서 혼자 따라 하다 보면 동작이 아니더라도 발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수빈쌤은 궁금증이 많을 초보자를 위해 발레 꿀팁은 물론 발레 용품에 관해 친절히 소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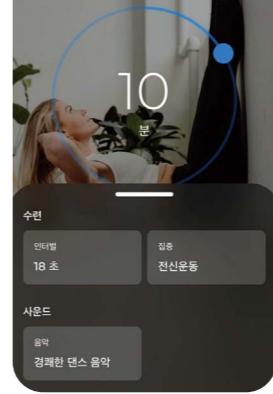
함께하면 좋은 앱

Barre 발레핏 (안드로이드/애플)

#평점 4.8 #다운로드 10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집중적으로 수련할 부위와 운동 시간, 배경 음악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설정한 사항에 맞춰 발레를 익힐 수 있다. 발레 동작에 집중한 영상 외에도 발레 동작을 응용한 홈피트니스 동작들로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홈발레뿐 아니라 홈트용으로도 제격이다. 수련 내용을 기록하는 기능도 있어 운동 진행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첫 수련을 시작하세요. Bar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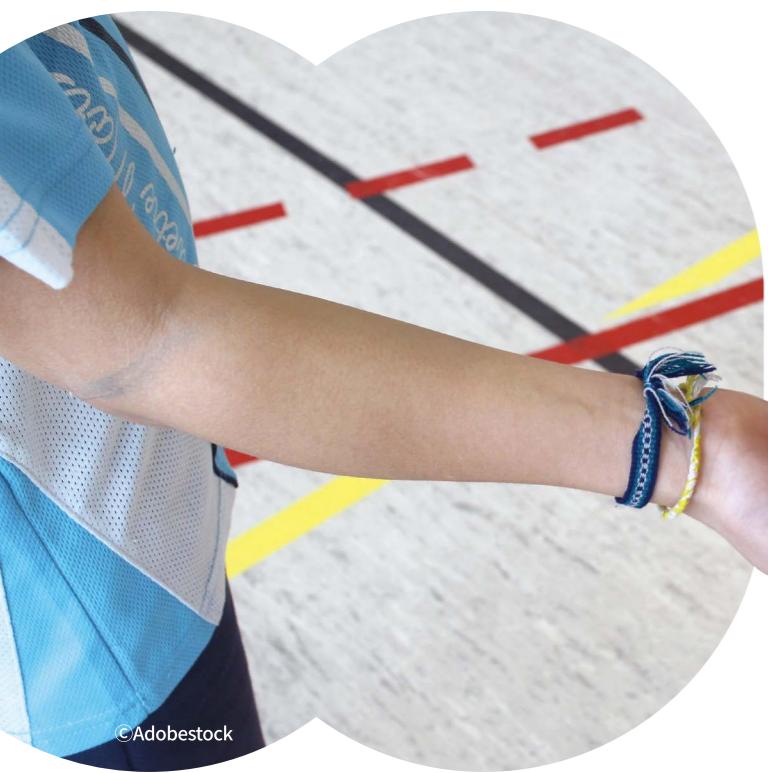
음악 발레 (안드로이드)

#평점 4.4 #다운로드 10만+

음악에 맞춰 동작을 표현하고 수행하는 발레는 어느 운동과 달리 음악이 빠질 수 없다. 영상으로 익힌 동작을 연습할 때, '음악 발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보자. 연습을 위한 발레의 기본 리듬부터 댄스 음악 까지, 박자별로 발레와 어울리는 배경음악들이 한데 모아져 있다.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인디아카



전통 놀이에서 유래한 뉴스포츠

인디아카라는 이름은 인디언(Indian)과 브라질 전통 놀이인 ‘페테카(Peteca)’에서 유래됐다. 1930년대 독일의 체육 교사인 카를 한스 크론이 브라질 원주민의 전통 놀이인 페테카에서 고안한 것을 이름에도 드러낸 것이다. 페테카는 우리나라 전래 놀이인 제기차기를 떠올리면 된다. 이후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10개국에 보급되어 동호회가 형성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도 인디아카볼을 즐긴다. 인디아카는 ‘인디아카볼’이라고 불리는 전용 구가 있다. 제기차기의 제기와 셔틀콕과 모양이 비슷하다. 하지만 깃털이 4개뿐이며 전체 길이는 셔틀콕에 비해 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배드민턴 종목을 접목한 뉴스포츠인만큼 경기장은 배드민턴 코트와 유사하다. 다만, 인디아카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에 따

인디아카(Indiaca)는 네트형 뉴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배구와 배드민턴 코트와 같고 규칙은 탁구, 배구와 비슷하다. 특히 이 종목은 공이 작고 가벼워 노인 체육 종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라 매트 높이가 다르다. 혼성일 경우 2m, 여자 단일 경기일 경우 1.9m이며 이외의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조절하여 경기를 치를 수 있다. 경기 방식은 맨손으로 전용 공을 쳐서 상대방 코트로 넘겨야 점수를 얻는 배구와 비슷하다. 맨손으로 인디아카볼을 쳐서 네트를 넘겨야 점수를 얻는다. 이때 배구와 마찬가지로 친 공이 자기 팀 코트 바닥에 떨어지면 실점이다. 인디아카 경기에 숙련되면 스파이크 등 배구 기술을 인디아카 경기에 접목해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다. 특히 인디아카는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 없어 남녀 혼합 경기도 많이 이뤄지며, 공이 작고 가벼워 구기 종목에 익숙하지 않거나 공을 무서워 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이유로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 체육 종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

경기 규칙

- ① 세트당 15점인 3세트제다. 2세트를 먼저 얻은 팀이 이긴다.
- ② 양 팀이 14점이 됐을 경우, 듀스로 진행한다. 이후 2점을 먼저 획득한 팀이 이긴다.
- ③ 경기자는 4명(남녀 혼합은 2~3명의 여자 선수 포함)이다.
- ④ 교체 선수는 4명까지 둘 수 있다.

경기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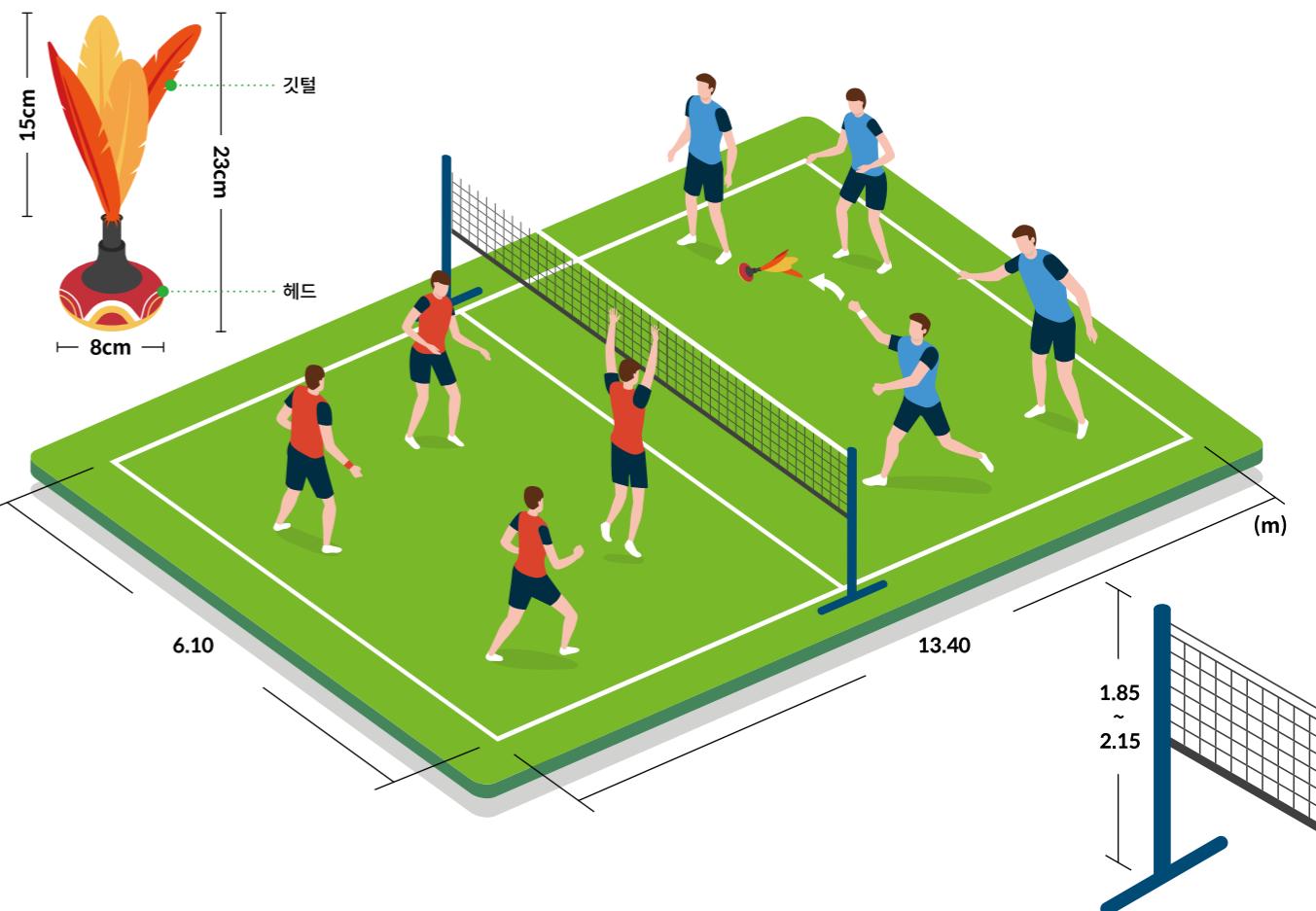
- ① 시합 시작 전, 양팀 주장은 가위바위보로 코트 혹은 선공을 결정한다.
- ② 서비스권이 있는 팀은 상대 쪽으로 서브하고, 서브에 실패할 경우, 상대팀에게 서비스권이 넘어간다.
- ③ 서비스권이 있어야만 득점할 수 있다.
- ④ 블로킹할 경우, 양손을 제외하고 모두 한 손으로만 경기한다. 이때 손바닥이나 손등, 주먹도 가능하다.
- ⑤ 세트마다 코트 변경을 한다. 마지막 세트에서는 어느 한 팀이 점수를 먼저 획득했을 때 바꾼다.

빼앗기면 반칙을 조심하세요!

상대방에게 서브권 또는 득점이 주어져요.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회 이내에 상대 코트로 보내지 못했을 때 ② 선수가 네트를 건드렸을 때 ③ 같은 선수가 2회 연속 인디아카볼을 쳤을 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선수가 네트를 넘어 플레이할 때 ⑤ 인디아카볼이 선수의 손 혹은 팔에서 멈췄을 때 ⑥ 인디아카볼이 팔꿈치~앞부분 이외의 신체 부위가 닿았을 때 |
|---|---|

인디아카볼 & 경기장



열심히 운동한 당신, 숙면이 필요하다

단체 스포츠나 기록 경기에서는 선수의 수행 능력 및 기술 향상 훈련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 훈련 이후 식단 관리나 휴식 등의 관리다. SNS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운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운동만큼이나 휴식도 중요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 것이 휴식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관심이 부족하다. 충분히 넘치는 운동과 식단을 실천하는 당신, 휴식을 실천할 때다.

숙면이 필요한 이유

미안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수면을 하는 동안 하루종일 손상된 우리 몸의 조직들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운동하는 동안 손상받았던 우리 몸은 근육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일까. 편안한 소파에 앉아 명상을 한다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전신 마사지를 받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휴식이 아니다. 운동 후의 진정한 휴식은 바로 ‘깊은 수면’이다. 인간은 왜 수면을 해야만 하는가?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해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다.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면 인지 기능 저하 및 집중력 저하, 호르몬이나 기분의 변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몸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수면 문제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겠지만 운동에서 꼭 필요한 휴식과 수면 부족과 관련한 문제들을 연관 지어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질 좋은 수면과 우리 몸의 회복

정상적인 환경에서라면 인간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수면을 한다. 이러한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에 따라 우리 몸의 시스템은 항상(Homeostasis)을 유지한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주기 리듬의 밸런스가 깨지면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도 깨지고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다. 우리 몸의 구조적인 손상의 회복은 수면 단계 중에서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인 3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운동 후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한다면 손상받은 몸의 회복은 더뎌진다. 긴 시간을 잔 것 같아도 깊은 수면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웨이트트레이닝의 경우 자연성근육통증(DOMS, Delayed Onset of Muscle Soreness)이 오기 마련이다. 적절한 수면을 취했다면 기상 후 바로 자연성근육통증을 느끼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적절한 수면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자연성근육통증은 더 늦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운동 프로그램 설계 시 단순히 ‘휴식’이라고 정하는 것보다 ‘숙면’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운동 후 적절하지 못한 수면으로 몸이 회복되지 못하다면 근피로가 누적되고 충분한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의 경우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나 적절하지 못한 수면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생리적으로도 성호르몬이나 성장호르몬을 감소시켜 근합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의 증가로 근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체중 감소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칼로리 제한을 하는 두 개의 그룹 중 하나의 그룹에서만 수면 제한을 하였다. 연구 결과, 수면 제한을 한 그룹이 수면 제한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지방이 덜 감소되었으며 근손실도

더 크게 나타났다. 결국 오늘 훈련을 훌륭하게 마쳤다면 충분한 휴식, 즉 질 좋은 수면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다음 훈련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트레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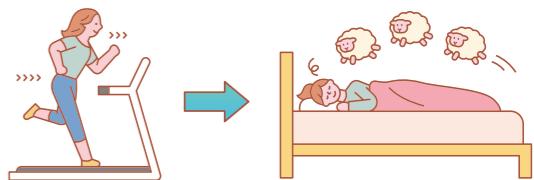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여기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질 좋은 수면을 위한 노력까지 필요하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면위생(Sleep Hygiene)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하고, 낮에는 햇볕을 쬐도록 한다.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커피 같은 각성제는 늦은 시간에는 섭취를 피한다. 침실은 취침만을 위한 공간으로 세팅한다. 침실로 일거리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하지 않고, TV 시청을 하면서 잠들지 않도록 한다. 핸드폰 조작은 피하고 조명은 완전히 끈다. 취침 전 운동을 하는 것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음주 후 수면을 하는 것 역시 깊은 잠을 방해한다. 이와 같은 기본 수칙들을 잘 지키면 숙면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면위생을 지키더라도 수면장애^{*}가 있다면 숙면은 어렵다. 이럴 경우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야간 근무자나 3교대 근무자 혹은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시차로 일주기 리듬에 교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일시적인 시차 변화로 인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 일주기 리듬의 변동이 생기지만 야간 근무 생활이 규

칙직이라면 수면위생을 지키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운동을 하면 된다. 3교대 근무자와 같이 수면 시간 자체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수면위생에 유의하는 것과 더불어 근무 전에 운동을 하고 근무 후 수면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숙면이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두가 강조하던 운동 후 휴식이라는 것이 바로 숙면이라는 인식도 생겼길 바란다. 웨이트트레이닝 후 바로 단백질 보충을 하지 않으면 운동한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강박적인 믿음처럼 숙면의 중요성도 믿어야 한다. 숙면을 통한 운동 후 휴식이 진정한 휴식이고, 운동의 마무리이다. 이를 위해서 운동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



*수면장애 정상적인 수면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불면증, 기면증, 램수면행동장애, 수면 무호흡증 등 때로는 의학적 증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글을 쓴 오성관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웨이트트레이닝 경력 21년의 취미 운동가다. 백세시대를 맞이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바른 건강법, 바른 운동법을 알리고자 SNS, 미디어,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떴다! 태극마크! 유쾌한 축구 수다 속으로

서울시청 여자축구팀 박은선&심서연&류지수&장유빈



지난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2022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이
열렸다. 일본과 중국, 대만을 상대로 총
세 경기를 치른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시청
소속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골키퍼
류지수, 수비수 심서연, 공격수 장유빈,
박은선이다. 올해 여자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서울시청 아마조네스팀 선수들과
함께한 유쾌한 축구 수다 현장에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심서연• 안녕하세요. 골키퍼 앞에서 수비 역할을 하는 수비수이자 서울시청 소속팀 주장을 맡고 있는 심서연입니다. 올해 서울시청 소속으로 이적했고, 이번에 여자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돼 경기를 치렀습니다.

박은선• 반갑습니다. 공격수 박은선입니다. 약 7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동아시안컵 일본전에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서울시청에 몸을 담근 지 3년 정도 됐네요.

장유빈• 박은선 선수와 같은 포지션인 공격수 장유빈입니다. 실업팀도, 국가대표 모두 처음인 막내입니다.

류지수• 팀의 수문장인 골키퍼 류지수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청에 입단했고, 올해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됐습니다.



국가대표 발탁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류지수• 항상 꿈으로만 그리던 국가대표가 됐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베테랑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기쁘기도 했지만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됐죠.

박은선• 지난 6월 캐나다 평가전 때 국가대표에 복귀했어요. 국가대표로서 마지막 경기가 캐나다 월드컵이었던지라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장유빈• 일단 실감 나지 않았죠. 제가 국가대표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심서연 선수에게 듣고 알았어요. 너무 긴장된 나머지 듣자마자 “저 못해요!”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심서연• 조금 당황했죠.(웃음) 저는 제가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보다도 ‘서울시청’이라는 단어가 네 개나 적혀 있던 대표팀 선수 명단을 잊지 못해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다른 소속 팀 선수들이 “서울시청 소속이 4명이나 있어!”라면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국가대표 발탁 후 분위기는 어땠나요?

심서연• 캐나다 평가전에 이어 동아시안컵도 함께 가게 돼 심적으로 안정됐어요. 한편으로는 주장으로서 세 명의 선수가 국가대표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어요.

류지수• 심서연 선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낯을 가리는 편인데 심서연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저를 먼저 소개해주는 등 많이 쟁겨줬어요.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박은선• 우리 서울시청 유영실 감독님을 포함해 코칭 스태프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보다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특히 장유빈 선수와 같이 훈련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장유빈• 정말요? 감사합니다.(웃음)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해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같은 팀이다 보니 의지도 많이 됐죠. 아마조네스 주장인 심서연 선수가 저희를 많이 챙겨줬어요.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요.

국가대표 감독인 콜린벨 감독 눈에 띄기 위해 노력했던 일화가 있나요?

장유빈• 서울시청팀에서도 막내인데, 국가대표팀에서도 제가 막내예요. 팀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하는 등 막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죠.

류지수• 한 달 만에 5kg을 감량했어요. 국가대표로 선발된 초기에 팀에서 체지방으로 1등을 했어요. 감독님께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말로 들렸어요.

박은선• 콜린 벨 감독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려 했어요. 다른 선수들에게 어눌한 한국어로 저를 ‘온실 속 화초’라고 소개해주셨죠. 지금 이 팀에 굉장히 필요한 존재니 온실 속 ‘화초’처럼 아껴줘야 한다고요.

심서연• 나중에는 박은선 선수를 화초라고 부르셨던 게 기억나네요.(웃음) 제게는 플레이가 이전보다 많이 위축됐다며 활동적으로 뛰라는 코칭을 자주 주셨어요. 특히 작년에 유독 심했는데 올해 서울시청으로 이적하고 경기력이 꽤 회복됐다고 말씀해주셨죠. 당시에는 몰랐는데 위축됐다는 말을 내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1승 1무 1패로 동아시안컵이 마무리됐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박은선• 3위라는 결과에 아쉬움이 커요.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고, 비길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감독님께서 “아쉽죠? 아쉬울 수 밖에 없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뒤통수를 땅 맞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선수가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류지수• 저는 비록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선배들을 보면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했을까’를 떠올리며 공부했죠.

심서연• 2대1로 1패를 한 일본전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경기를 뛰고 나서 무릎 부상이 있어서 나머지 두 경기는 뛰지 못했죠. 올해 동아시안컵은 반성도 많이 하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도 모두 큰 부상 없이 잘 마무리돼 다행이죠.

장유빈• 짧은 시간이었지만 출전했던 두 경기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직 부족하다는 걸 실감했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
곧 열릴 전국체전에서는 리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

박은선(FW) 서울시청
(2020년~현재,
과거 입단 이력 有)

- 2021 WK리그 4위
- 2020 WK리그 7위
- 2019 WK리그 5위
- 2015년 캐나다 여자월드컵 국가대표



WK리그가 막바지를 향한 가운데 서울시청은 현재(8월 16일)

6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반등을 위한 각오가 있다면요?

심서연• 상위권으로 오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8월에 남아있는 두 경기 모두 이기면 순위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요.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경기들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요.

류지수• 항상 시즌이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지만 올해는 유독 아쉬움이 커요. 스코어적으로 결과가 많이 안 따라줬던 것 같아요. 경기력만으로 봐서는 상대 팀보다 우리 팀이 우위일 때가 많았다고 자부하거든요. 골키퍼인 만큼 남은 경기는 최대한 실점을 막고 싶어요.

장유빈• 공격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고 싶어요. 어시스트로서 최선을 다하거나 골을 넣는 등 서울시청 아마조네스에 제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박은선• 류지수 선수도 말했지만 서울시청이 올해 특히 운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치러진 경기들이니 남은 경기에 집중해야죠. 팀에 도움이 되야겠다는 마음이 커요. 또, WK리그도 남았지만 곧 열릴 전국체전에서는 리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
서울시청 아마조네스에 제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

장유빈(FW) 서울시청
(2022년~현재)

- 2022년 국가대표 첫 선발
- 2022년 드래프트 1순위
- 2021년 춘계한국여자축구 연맹전 1위
- 2021년 제29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2위

“
팬들이 주신 마음을 원동력 삼아 더 땀 흘리는 아마조네스가 되겠습니다.”

”

심서연(DF) 서울시청
(2022년~현재)

- 2021년 제20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3위
- 2020 WK리그 1위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1위



마지막으로 서울시청 아마조네스 팬과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유빈• 경기를 뛰다 보면 관중석에서 “장유빈! 장유빈!”하며 팬들이 외치는 제 이름이 듣지 못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들려요. 힘들다가도 제 이름이 들리면 주먹 꽉 쥐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며 다시 마음먹죠. 힘이 되주셔서 감사해요.

박은선•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팬들이 계셔 힘이 돼요. ‘박라탄’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매번 경기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재미없는 경기는 안 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류지수• 날씨가 좋아도, 나빠도 항상 와주셔서 저희 기를 살려주세요. 분명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어서 더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하고, 팬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서연• 주장이다 보니 팬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와요. 응원 메시지뿐 아니라 이벤트를 하려는데 무엇을 하면 선수들이 좋아할지 물어보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팬들이 주신 마음을 원동력 삼아 더 땀 흘리는 아마조네스가 되겠습니다. ☞



“
남은 경기에서 골키퍼로서 최대한 실점을 막고 싶어요.”

”

류지수(GK) 서울시청
(2022년~현재)

- 2022년 국가대표 첫 선발
- 2021 WK리그 4위
- 2020 WK리그 3위
- 2019 WK리그 3위

'아무튼 스포츠'는 스포츠와 관련 문화, 트렌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MZ세대의 유쾌한 디지털 운동 생활

MZ세대에게 운동은 집 밖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디지털 운동 콘텐츠가 넘쳐나는 요즘에는 집에서도 편리하고 재미있게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이들의 유쾌한 디지털 운동 생활을 함께 살펴보자.

운동과 디지털의 색다른 만남

퇴근 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운동을 배우러 다닌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동이 디지털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에서도 각종 홈트레이닝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전문가에게 일대일 온라인 PT도 받을 수 있다. 앱으로 K-POP 댄스를 배우고, 성장형 게임으로 운동 동작을 재미있게 따라 하고, 온라인 사이클 플랫폼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하체를 단련한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K-POP 댄스를 집에서 배울 수 있다면? LG전자와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런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홈피트니스 앱 '피트니스캔디'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근력·코어·댄스·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스트레칭·명상 등 6가지 카테고리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인데, 특히 SM엔터테인먼트의 K-POP 역량을 활용해 온라인 댄스 강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어 MZ세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운동에 게임 요소를 녹여 내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게임 회사 닌텐도에서 지난 2019년 발매한 운동형 게임 '링 피트 어드벤처'는 MZ세대 홈트레이너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운동을 통해 캐릭터와 체력을 자연스럽게 성장시키며 마치 RPG 게임을 즐기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큰 특징. 의학 전문가들이 추천할 만큼 운동 효과도 상당하다. 한편 카카오의 에듀테크 계열사 애나두에서 내놓은 '야핏 사이클'은 온라인 사이클 운동 게임 서비스다. 실내 사이클의 전면부에 부착된 전용 태블릿PC 화면 속 가상 캐릭터를 움직이며 친구들과 사이클 경주를 하거나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 주변 도로를 달리면서 '금괴 수집'



©Shutterstock

등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집에서도 사이클 라이딩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용자의 몸과 근육의 움직임을 3차원 모션 캡처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운동 자세를 교정해 주는 온라인 PT 앱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개개인에게 꼭 맞춘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홈트레이닝 서비스다.

디지털 운동 콘텐츠의 이유 있는 성장

디지털 운동 콘텐츠의 뚜렷한 성장세는 최근의 대내외적 상황, MZ세대의 특성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먼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을 몸소 경험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안전한 집에서 즐겁게, 지속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운동형 디지털 콘텐츠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에 있어 참신한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의 특성도 디지털 운동 콘텐츠의 성장에 일조했다. 우리가 기존에 즐기던 운동은 대체로 명확한 규칙과 운동 장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변화를 주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운

동형 디지털 콘텐츠는 새로운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운동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예컨대 사이클을 길 위가 아닌 깊은 바닷속에서 즐기며 심해어와 함께 달릴 수도 있고, 갓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K-POP 댄스를 집에서 곧바로 배울 수도 있다. 디지털 콘텐츠 특유의 유연성이 운동의 모양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성향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데이터 플랫폼 'data.ai'의 '2022년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건강 및 피트니스 앱 다운로드 수는 5,687만 건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4,071만 건)에 비해 40% 가까이 급증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 팬데믹 이전부터 문명은 디지털화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었으며 팬데믹은 그 속도를 한층 끌어올렸을 뿐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진정한 의미의 앤데믹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운동 콘텐츠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MZ세대는 앞으로 얼마나 더 기상천외한 운동형 디지털 콘텐츠를 즐기게 될까. 그 미래가 자못 궁금해진다. ☈

글을 쓴 강진우는 객관적인 정보와 색다른 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사와 문화칼럼을 쓴다.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현안과 분야에 몰입한다. 소설 <선물>, 자기계발서 <캘럼니스트로 먹고 살기>를 집필했다.



서울시청 탁구팀, 제38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단체전 우승



지난 8월 5일(화) 충청북도 제천에서 막을 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에서 서울시청 탁구팀이 남자 일반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국군체육부대, 삼성생명 등을 차례로 꺾으며 기업의 후원을 받는 팀들을 상대로 놀라운 선전을 펼쳤는데, 결승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우승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기 대회에서 서울시청과 같은 관공서팀이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한 경우는 2006년 대전시설관리공단이 한차례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서울시청이 우승을 거머쥐면서 대통령기 대회에서 우승한 두 번째 관공서팀이 됐습니다.

2022 FIVB 발리볼 챌린저컵 개최



지난 7월 28일(목) ~ 31일(일), 4일간 송파구 소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22 FIVB(국제배구연맹) 발리볼 챌린저컵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본회 및 본회의 회원단체인 서울시체육기획원 주관으로서 사업의 예산 지원 및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총 8개 국가가 참여하여 대회 우승을 위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 FIVB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및 2024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해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였으나 3위

로 대회를 마감하며 아쉬움을 남겼으며, 우승은 결승에서 튜르키예에게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한 쿠바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시청 펜싱팀 윤지수 선수, 제62회 대통령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우승



서 서울시청 윤지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윤지수 선수는 우리나라 펜싱(사브르) 간판선수로 2021년 도쿄올림픽 때 우수한 성적과 함께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 이번 대회 결승에서 우리나라 최초 여자 펜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같은 팀 소속인 김지연 선수에게 승리하여 우승을 따내며 평소보다 더 값진 금메달로서 의미를 더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시즌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르는 중요한 대회였는데, 윤지수 선수는 우승이라는 성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에 한발자국 가까이다가갔으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등 다가을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낼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체조팀 김한솔 선수, 제47회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 2관왕 달성



지난 7월 17일(일) 충청북도 제천 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47회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에서 서울시청 김한솔 선수가 마루운동과 도마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김한솔 선수는 지난 6월에 개최된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마루운동과 도마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마루운동 14.100점, 도마 13.900점으로 우승하며 대한민국 간판 체조 선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한솔 선수는 전라남도에서 개최될 선수권대회를 끝으로 8월 일정을 마무리 한 후 10월 세계선수권 등 다가을 국내·외 대회를 위한 담금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복싱팀 이종승 선수, 제52회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 우승

지난 8월 4일(목) ~ 8일(일) 울산광역시 소재 울주군 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2회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서울시청 이종승 선수가 남자 일반부 -63.5kg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종승 선수는 이번 대회 첫 경기인 대구광역시체육회 김주성 선수와의 대결에서 KO승리 후 기세를 이어가 결승에서는 수원시청 이재혁 선수를 상대로 4대1 판정승을 따내며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같은 대회에 출전했던 서울시청 최주현 선수는 남자 일반부 -57kg급 경기에 서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3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서울시청 컬링팀, 홋카이도 뱅크 컬링 클래스 2022 우승



지난 8월 7일(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홋카이도 뱅크 컬링 클래스 2022 대회에서 서울시청 컬링 팀이 TM가루이자와(일본)팀을 상대로 7대2로 승리하며 5전 전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국내에서 개최된 선수권대회 경국대표 선발전에 이어 연속 우승함으로써 서울시청 컬링팀의 경기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직후 양재봉 감독은 “앞으로 팀의 부족한 면을 채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울시청 컬링팀은 8월 말 유로 슈퍼시리즈(영국)에 참가한 뒤 10월 범대륙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뉴스

2022 서울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3년 만에 개최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올림픽 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2022 서울코리아 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이 공인한 대회로 서울 시 선수단 7명을 포함하여 4개국에서 56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해 총 8개의 세부종 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임호

원 선수가 남자 메인드로 단식 및 복식 우승을, 일본의 시오리 후나미즈 선수가 여자 메인드로 단식 및 복식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선수단의 한수진 선수는 메인드로 여자 복식 3위를, 남명식, 황주연 선수는 메인드로 쿼드 복식 3위를 기록하며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골볼 선수단 아시아태평양골볼선수권대회 첫 우승



서울시청 골볼 선수단(김희진, 서민지, 심선화, 최엄지) 전원이 포함된 대한민국 골볼 여자 국가대표팀이 7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202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아시아태평

양골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란, 호주, 태국이 참가한 예선전에서 3전승으로 1위를 차지하여 결승에 직행한 선수단은 결승에서 호주를 7대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아시아태평양선수권

대회 첫 우승과 함께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확보해 오는 12월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2022 IBSA 세계골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9월 개최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오는 9월 20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약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블링, 파크골프 등 5개의 동호인 종목을 포함해 4개의 화합종목, 16개 체험종목이 운영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비장애인과의 소통의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 스포츠 궁

9+10월호를 잘 읽었나요?

서울시의 체육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스포츠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독자분들의 이해를 돋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9+10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답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퀴즈 정답은 웹진(QR코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기 이동) 혹은 이메일 haeung92@seoulsports.or.kr로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정답 표기)



웹진
QR코드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10분을 추첨하여 10월 중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립니다.



STEP
01

1982년 7월 완공돼,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야구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_9p.)

주관식

STEP
02

생활체육과 전문 체육 간의 실질적 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주목 받은 디비전 리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_18p.)

- ① 국민체육진흥공단 ②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③ 한국프로축구연맹 ④ 대한체육회 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STEP
03

은평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종목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힌트_26p.)

- ① 당구 ② 배드민턴 ③ 아쿠아로빅 ④ 야구 ⑤ 필라테스

STEP
04

태권도 도장, 요가원 등 민간 시설 기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개발된 비대면 스포츠 코칭 서비스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_34p.)

- ① 키핏 ② 펠로톤 ③ 스마트 홈트 ④ 라이크 핏 ⑤ 사운드 짐

STEP
05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전사로만 이루어진 전설적인 부족 이름이기도 한 서울시청 여자축구단 팀명은 무엇일까요? (힌트_50p.)

주관식

지난호 정답자

- 윤희 * 이정 * 정다 * 박세 * 김은 * 김동 * 김용 *
- 박혜 * 권민 * 이태 *

Monthly Challenge

챌린지
카드

서울스포츠와 함께하는 오하운 두 달 챌린지

오늘 하루 운동

About 핫둘핫둘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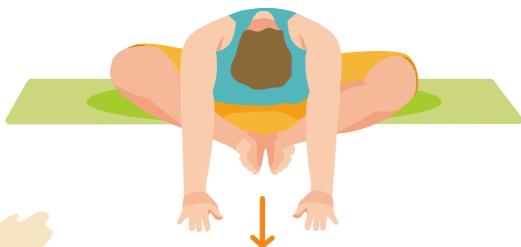


'핫둘핫둘서울' 유튜브 채널을 바탕으로 소개하는 스트레칭!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인교돈 태권도 선수가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수행하는 스트레칭으로 지금 함께 시작하자.

유튜브 주소 youtube.com/channel/UCIUGWfrNz3SXUphrl_i5Zgg

다리 오므려 상체 내리기

1. 양쪽 발은 불이고 손은 앞으로 뻗는다.
2.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면서 편하게 호흡한다.
3. 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며 머무른다.
4. 마무리 후, 10초간 휴식을 취하며 반복한다.



다리 뻗어 발 잡기

1. 오른 다리를 측면으로 열어 내고 왼쪽 다리는 안쪽으로 붙인다.
2. 뻗은 다리 쪽으로 양팔을 앞으로 뻗어 발을 잡는다.
3. 상체를 천천히 내린다.
4. 좌우 밸런스를 위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옆으로 앉아 허리 풀기 (허리 중심의 스트레칭)

1. 오른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는다.
2. 왼쪽 발이 오른쪽 허벅지에 올 수 있도록 다리를 접는다.
3. 양손을 머리 뒤로 두어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려간다.
4. 좌우 밸런스를 위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하루하루 자신의 운동량을 ○(우수), △(보통), ✕(미흡)로 표기해보세요!

챌린지
카드

Date. / / ~ / /

10 OCTOBER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NOVEMBER

Date. / / ~ / /

Monthly Challe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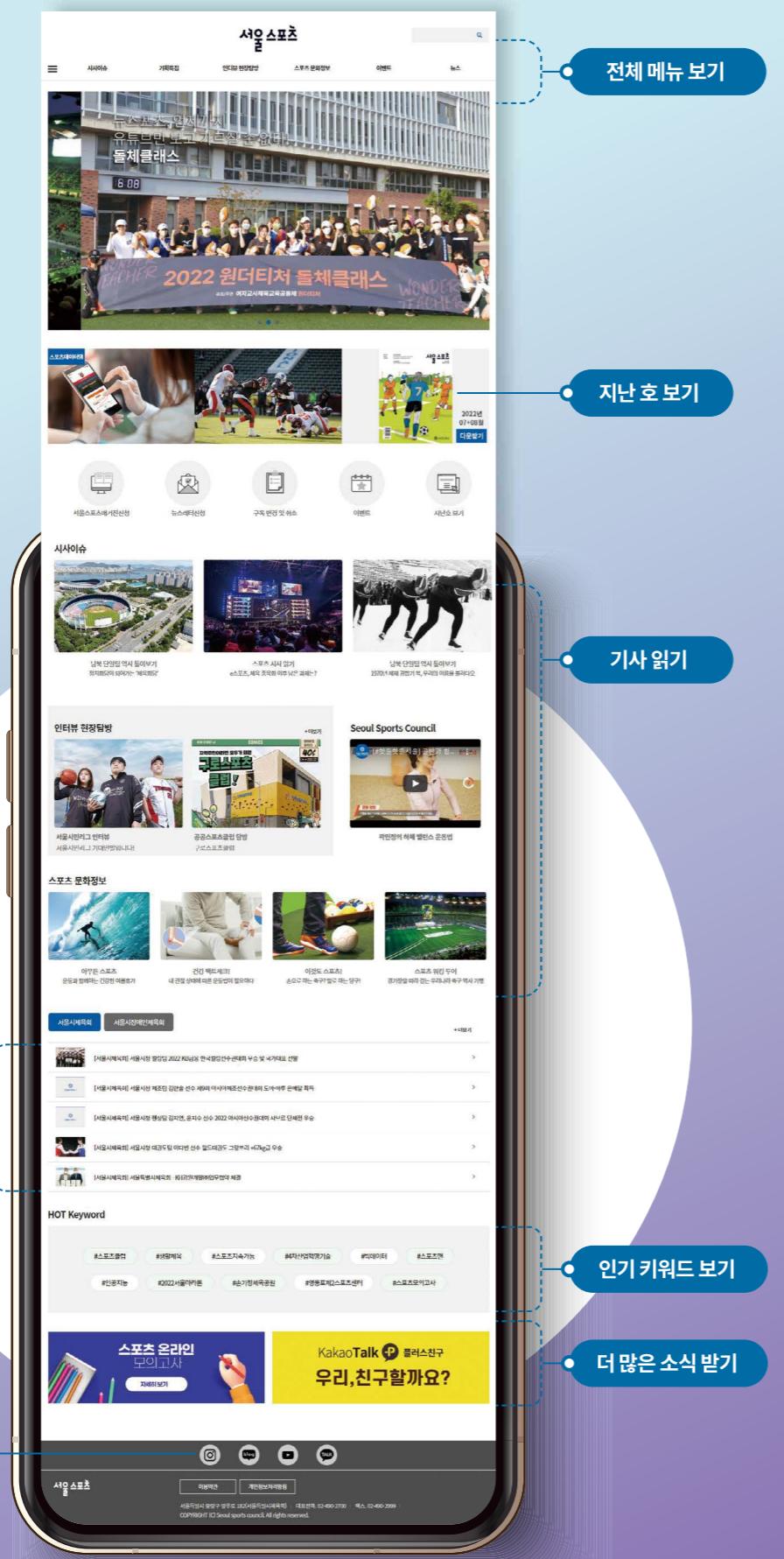
챌린지
카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웹진으로 즐기는 서울 스포츠

웹진 사용설명서

웹으로 만나는 <서울스포츠>가
아직 낯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news.seulsports.or.kr 로
접속하셔서 웹진의 A부터 Z까지
함께 살펴봅시다.



서울스포츠 웹진 오픈기념 EVENT

한잔 받고, 한잔 더!



뉴스레터 구독하고, 웹진 오픈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두 가지 모두 참여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2장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참여 기간 2022.09.01(목) ~ 10.15(토)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1매

당첨자 발표 10월 말

참여 방법



뉴스레터
구독



서울스포츠 웹진
news.seulsports.or.kr



인스타그램
댓글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_sports_council/

<서울스포츠> 웹진에 방문해 뉴스레터를 구독한다.

인스타그램(@seoul_sports_council)에 올라온
'웹진 오픈 이벤트'에 댓글을 남긴다.

2022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2022. 9. 17.(토) ~ 18.(일)

잠실 실내체육관 및 해당 종목별 경기장

개회식 2022. 9. 17.(토) 10:00 ~ 11:00

<행사내용>

동호인종목 생활체조, 체조(댄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9종목) 족구, 국학기공, 풋살, 파크골프

시민참여 종목 한궁, 볼로볼, 2인3각, 협동바운스, 단체줄넘기,
(14종목) 볼풀농구, 셔플보드, 윷놀이, 릴레이게임, 골프퍼팅,
대형고스톱, 후크볼, 제기차기, 농구슈팅

부대행사 뉴스포츠 체험, 스포츠버스(VR 및 WII 스포츠 체험),
엑서핏 체험존, 포토존 등

